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3351호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뉴스]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02

Economy

코스피 2030.68 (+21.26)
코스닥 693.42 (+4.64)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환율(원·달러) 1149.50 (+5.50) 〈26일〉

'설중귀려 별리단장' 설중귀려 별리단장(雪中歸驢 別離斷腸·눈 내리는데 이별 하려하니 애간장이 끊어진다). 민주화 운동의 '거산(巨山)'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26일 첫 국가장(國家葬) 영결식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YS가 서울 사당동 국립현충원에 영면하는날 하루종일 '서설(瑞雪)'이 흩날렸다. 국회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부인 손명순 여사와 아들 김현철씨 등 유가족들이 분향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 번뇌 잊으시고 靑山에 쉬소서"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칼바람에도 영결식 7000명 참석
'청산에 살리라'로 마지막 길 배웅

장례위원장 맡은 황교안 총리
"나라 위한 헌신, 잊지 않을 것"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엄수된 국가장 영결식을 끝으로 현충원에 고이 잠들었다. "나는 수풀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거산(巨山)은 평소 자신이 즐겨 듣고 부르던 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배웅 삼아 마지막 길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닷새 만에 치러진 영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후 2시부터 80분동안 거행됐다. 영하의 날씨에 눈발이 세차게 날렸지만 추모객들은 국회의사당을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영결식에는 부인 손명순 여사와 차남 현철씨 등 유가족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각계 대표와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유지를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빈소를 다시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배웅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영결식은 사회를 맡은 김동건 아나운서의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 ▲약력 보고(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조사(황교안 국무총리) ▲추도사 낭독(김수한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겸 전 국회의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 총리는 조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치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의 길을 걸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발자취를 우리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상도동계 민주화 투쟁 동지인 김 전 의장의 추도사로 영결식은 애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다"고 평가한 뒤 "대통령님의 생애는 시련과 극복, 도전과 성취의 대한민국 민주헌정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참으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추도사의 끝을 맺으며 동지를 먼저 보내는 애석한 마음을 눈시울에 담았다.

국가장인만큼 4대 종교가 모두 거행됐지만 고인과 유족의 종교인 개신교 의식이 먼저 배치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의 집전 아래 발인예배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유족 외에도 닷새 내내 빈소를 지킨 김 전 의장과 김덕룡 전 의원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등 측근과 정관계 인사 100여명이 자리했다.

영결식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굴곡진 인생을 함축한 생전 영상도 상영됐다. "날 감금할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순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은, 마음은 전두환이 빼앗지는 못해." 전두환 정권 시절 가택연금을 당한 1985년 2월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과 고인의 울분에 찬 외침은 영결식장을 가득 채웠다. 5일장을 치르는 내내 빈소를 묵묵히 지켰던 차남 현철씨는 고인의 생전 영상이 나오자 이윽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채 오열했다.

상주와 직계유족의 헌화·분향에 이어 바리톤 고성현씨가 추모곡 '청산에 살리라'를 부르면서 영결식의 엄숙함은 더해졌다. 이날 공식 노제와 추모제는 유족의 뜻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영결식 직후 운구행렬은 고인이 46년간 살았던 상도동 사저에서 10분간 머문 뒤 기념도서관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김 전 대통령의 묘소는 현충원 장군 제3묘역 오른쪽 능선에 조성됐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다. 양김 시대는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지만 영원한 경쟁자이자 동지인 두 전직 대통령은 영면에 들어서도 함께하게 됐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뿌리부터 바꾼다" 구본준, 신사업 진두지휘

LG, 재계 첫 2016년도 정기인사

성과주의 기반… 전자·화학 에이스 발탁
이정애 전무, 그룹 최초로 女부사장 승진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LG로 이동해 신성장사업추진단장을 맡아 그룹의 미래성장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진두지휘한다.

26일 (주)LG,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등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2016년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사장 승진자 7명을 내면서 최고경영진을 강화했다. 지난해 사장 승진자만 3명을 선임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LG그룹은 철저한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전자와 화학 등 주력사업과 자동차부품·에너지 등 신성장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중책을 맡은 경영자들을 과감하게 발탁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이 대표적이다. 한 부회장은 LCD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던 지난 2012년 사장으로 취임 후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선도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9인치 이상 대형LCD패널 시장에서 6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본준 (주)LG 부회장

전무에서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장으로 파격 승진한 LG전자 홍순국 사장도 있다. 두 계단 발탁 승진은 LG전자 내 첫 번째 사례로 신설된 소재·생산기술원장을 맡게 됐다.

LG전자 냉장고 등의 핵심 부품인 친환경 고효율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 혁신에 기여한 정원현 연구위원은 부장급에서 상무를 거치지 않고 전무로 발탁 승진했다. 지난 2009년 전무 직급이 도입된 이후로 부장에서 전무로 바로 승진한 것은 정 전무가 처음이다.

㈜LG 사업개발팀 백상엽 부사장은 1년만에 다시 사장으로 발탁됐다. 백 사장은 LG그룹이 주력사업으로 밀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본격 추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LG그룹 최초의 여성 부사장도 나왔다. LG생활건강 이정애 전무는 생활용품시장 1등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전무 3년차에 부사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식품업계도 '구조조정' 삭풍

메르스 여파… 상시 구조조정 도입
분유 1등 남양유업, 290여명 줄어
노사간 임금협상 못한 곳도 늘어나

식품업계에 동장군보다 무서운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식품기업들은 올해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실적 부진을 우려해왔다. 최근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경영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나선 기업도 늘고 있다. 특히 우유소비 감소로 재고량이 최대치에 육박한 유업계가 식품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1순위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상시구조조정을 도입하거나 노사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이 늘고 있다.

유업계는 이미 구조조정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말 2795명에 달했던 임직원수가 지난 3·4분기 2504명으로 9개월여동안 290명이나 줄었다. 전체 직원의 14%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업계는 남양유업이 분유시장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강자지만 유업계 전반의 위기를 피해가진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직원수 감소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직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빙그레도 같은 기간 임직원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말 1582명에 달했던 임직원수는 현재 70명 가량이 줄어든 상태다.

크라운 해태제과는 구조조정보다 연봉협상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15년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한줄 News

▲ 정치·사회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엄수된 국가장 영결식을 끝으로 현충원에 고이 잠들었다. "나는 수풀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거산(巨山)은 평소 자신이 즐겨 듣고 부르던 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배웅 삼아 마지막 길을 떠났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아더 존 패터슨(36)의 공판에서 도검을 제조하고 관련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문가 A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도검 전문가가 범인은 사건 당시 사용된 칼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제

▲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80개국을 채우면 전쟁의 화염으로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 에어백 결함으로 차량 3400만 대라는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를 부른 일본의 **다카타**사가 15년 동안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

▲ **LG그룹**이 26일 2016년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안정 속 체질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업간거래(B2B) 분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대폭 인사를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국내 판매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환경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첨단 미래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금융·부동산

▲ **황재훈** 유안타증권 장기자산관리파트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노후자산 관리법에 대한 팁과 절세상품 등에 대해 "1%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보다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 내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국내 경기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국내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올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주주 친화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수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임대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 편의성'이 우수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세종시 한솔동 '퍼스트프라임 1단지', 포스코건설이 이달 초 대전에 공급한 '관저 더샵' 등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라이프

▲ **식품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유업계는 우유재고 증가 등으로 구조조정 1순위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 1위 기업은 올들어 전체 직원의 14%에 이르는 290명이나 직원수가 줄었다.

▲ **무한리필점** 전성시대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구이전문점 뿐만 아니라 한우 등심, 스테이크, 삼겹살, 족발 등 고기류와 랍스타, 장어, 참치, 연어 등 해산물류, 분식류까지 무한리필점의 메뉴도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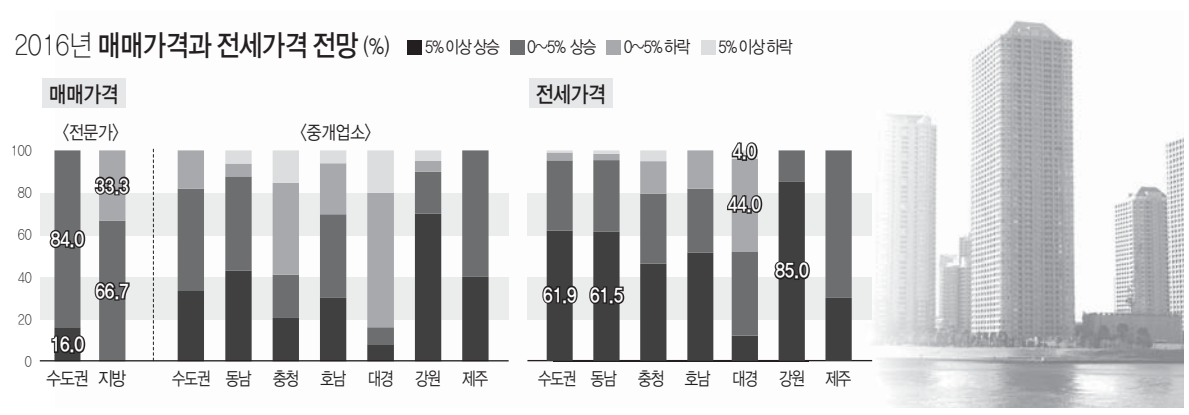
▲ 아바·록시트·에이스 오브 베이스를 잇는 스웨덴 보이밴드 JTR이 29일까지 한국에서 프로모션 투어를 진행한다.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 대표단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오른쪽)과 북측 대표단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내년에도 수도권 집값 5% 오를 것"

한은, 지역경제 보고서
전세수요 매매전환 영향 커
2~3년 후 조정 가능성 무게



내년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가격이 5% 안팎, 전세가격은 5% 이상 상승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간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4.3% 상승해 2011년(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부동산114, 대학교수 등 시장전문가 25명과 전국의 30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0월 23일~11월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과 제주권은 각각 7.6%, 5.9% 상승해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장기간의 주택가격 약세에서 벗어나 4.8%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 전문가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전문가 49.0%, 중개업소 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방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하락"이라고 응답한 비중(전문가 45.8%, 중개업소 32.7%)이 가장 높았다.

'주택을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전문가 20.8%, 중개업소 25.9%)도 상당수에 달했다.

오는 2016년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상승세를 지속한다고 응답(5% 내외 84%, 5% 이상 16%)했다.

지방의 경우 응답자의 33.3%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각 권역별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경우 상승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도 40% 안팎(강원권은 70%)에 이른다.

반면 그간 주택공급 물량이 많았던 충청권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던 대경권의 경우 하락한다는 응답이 50%를 웃돌았다.

최근의 주택공급물량 과다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2~3년후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전문가들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권역 중개업소들의 경우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0월중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2% 상승해 전년(4.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7.1% 상승해 3년 연속 5%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청권, 호남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임대인의 월세선호'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 우려', '주택공급 물량 부족', '차입여력 확대' 등을 꼽았다.

시장전문가들도 '임대인의 월세선호'를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응답비중 43.0%)이라고 답했다.

2016년 전세가격 전망에 대한 조사(중개업소 대상)결과 수도권, 동남권, 강원권의 경우 5% 이상 상승한다는 응답 비중이 60%를 상회해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전문가 중 74%도 2016년 수도권 전세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의 지속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1년 정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6.7%를 차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금융사 해외진출, 정부가 적극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규제 개혁 상시화 위해
운영규정 내달 중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정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된다.

임 위원장은 26일 우리은행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네트워크 200호점 개점행사에 참석해 "저금리와 고령화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금융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해외사업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해외사업을 도모하고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금융회사"라며 "글로벌 역량강화, 현지기업 대상 영업강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이제는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와 함께 상시평가를 통해 개혁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혁의 상시화와 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무자본M&A, 알아서 피해라?

사채로 회사 먹는 '기업사냥꾼'
대출 갚고 이익내려 불법 자행

"시장질서 훼손하는 주범,
사법당국이 적극 감시를"

#. 정 모씨 등은 빌린 20억원으로 2011년 10월 LCD 부품 생산업체 W사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3100만주를 247억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주가조작으로 부풀린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같은 해 12월 잔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2013년 4월 빌린 5억원을 계약금으로 프린터 부품 생산업체 P사 전 경영진으로부터 주식 253만주를 넘겨받았다.
그는 주식을 담보로 45억원을 빌려 잔금을 내고 담보 가치를 유지하려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10월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코스닥시장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심심찮게 나온다.

문제는 속칭 '기업사냥꾼'들이다.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채 등을 끌어다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무자본 M&A'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손에 넣은 기업사냥꾼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인수자금을 갚고 차익도 거두기 위해 주가조작,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곤 한다.

LBO(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 방식의 무자본 M&A에 대한 금융·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돈은 소액주주 주머니에서 나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좀비기업이나 다름없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이 '무자본 M&A 전문가'의 표적이 돼 M&A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M&A가 성사된 A사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 지급도 끝났다. B업체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계약금 일부가 지급된 상태다.

주식시장 한 관계자는 "표면적인 인수주체는 서로 다른 회사지만, 그 두 회사의 대표가 하나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또 동시에 상장사 두 곳을 인수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도 적잖다"고 전했다.

실제 B사의 투자확약서에 따르면 A사의 양수인 중 하나가 B사의 경영권 인수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A사의 실소유주는 무자본 M&A 전문가라는 소문도 있다.

'무자본 M&A'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인수할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을 주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기업사냥꾼 입장에선 자기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고도의 계산된 투자 기업이다. 문제는 부작용이 적잖다는 점이다. 먹튀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타깃은 시가총액이 작거나 현금 보유액이 많은 상장사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는 호재성 정보를 띄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먹튀'하기에 적합하고, 현금이 많은 회사는 횡령하기에 안성맞춤이어서다.

이들이 의심 받는 이유는 뭘까.

B사를 예로 들면, M&A설이 시장에 흘러 나온 1월 초만 해도 이회사의 시가 총액은 80억원 남짓이었다. M&A가 성사된 시점에는 무려 45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것도 3년 째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이었다. 마이너스(-)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알려졌던 대주주도 남는 장사를 했다. 1월 싯가로 30억원 남짓이던 지분가치가 이 기간 170억원까지 상승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란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영업 성적도 형편없다. A는 2012년 한 해만 빼고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을 냈다.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B사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흑자가 발생한 연도는 2009년과 2012년 두해 뿐었다. 두번 중 한 번이라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 두 해 흑자 내용도 좋은 편은 아니다. 직전과 평균에 비해 상품 매출 원가율과 차이가 난다.상품매출의 경우 재고자산을 늘려 잡으면 그 만큼 원가가 떨어지고 이익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일부 상장사의 징검다리 흑자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분식회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시장 한 관계자는 "기말에 재고를 의도적으로 과대계상해 수익을 더 낸 것은 분식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재고자산을 활용한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의 원가율을 상승시켜 당년도 손실대신 이듬해의 손실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B사는 수익이 난 이듬해 상품매출원가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패스트트랙 조사권 등 보호 강화를**

무자본 M&A의 타깃이 된 상장사는 대부분 초토화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한 15개 기업 중 7개사는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살아남더라도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미'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횡령 목적으로 무자본 M&A를 당한 기업 주가는 M&A 후 평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87% 떨어졌다. 차익취득 목적으로 인수된 기업도 평균 68% 하락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세력의 덫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기업을 '투자 리스트'에서 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규모〉 (단위:억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KRW/USD	129.2	137.3	140.5	151.3	152.9	146.5
KRW/기타통화	6.6	6.5	8.7	19.6	37.9	28.3
KRW/CNY	-	?	?	13.9	32.4	22.9
JPY/USD	5.3	6.1	7.5	8.2	6.4	4.7
USD/EUR	9.2	9.3	8.7	10.3	11.2	8.7
기타	9.9	11.1	8.4	9.1	9.6	8.7

자료=한국은행

원·위안화 직거래1년, 미래 10년 준비할 때

하루평균 거래 20억달러 웃돌아

오는 12월 1일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린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하루평균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웃돌며 기대 이상의 활발한 거래량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물량을 뒷받침해줄 위안화 무역결제가 여전히 부진한 채 정부의 인위적 시장조성 정책에 따른 은행 간 거래가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내실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며 3·4분기 하루 평균 원·위안화 현물환 거래규모는 22억9000만 달러로 29.3%(9억5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하반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 선정을 앞두고 전분기에 크게 늘어난 거래가 줄어든데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로 교역규모가 축소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12월 1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4분기 13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64.75%가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금융시장 불안 등 중국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지난 8월 107억 위안까지 줄었던 거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거래규모 320만달러의 고전 끝에 넉 달 만에 문을 닫았던 1996년 원 · 엔 직거래시장의 실패 궤도에선 벗어난 모습이 완연하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현재 위안화 거래량의 상당량이 당국이 시장조성자로 지정한 12개 은행 간의 외환트레이딩 물량이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적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시장 떠받치기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곧 한계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위안화를 운용하려고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달러화에 편중된 무역 결제 구조로는 성장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4분기 한국의 수출 결제대금 중 달러화 비중은 86.1%, 수입대금의 결제비중은 81.8%나 된다.

박 연구위원은 "한·중 정부가 양국 증권거래소간 교차거래 추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별 투자한도와 투자 수익 본국 송금 제한 완화, 국내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 확대 등을 통해 자본거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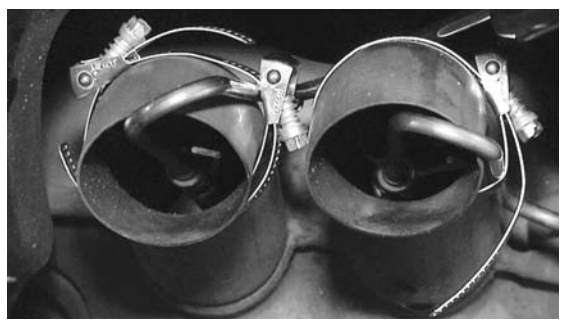
/김문호기자

환경부 "폭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 발표

"정부 발표 존중… 내년초 12만5000대 리콜"

정부, 全디젤차로 조사 확대
기준 미달땐 해당 차종 판금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국내에서 판매된 폭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고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의 주립대학 교정에서 2010년형 폭스바겐 제타 TDI의 배기관을 찍은 것이다. /뉴시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국내 판매 폭크스바겐 디젤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정부의 '판매정지 명령'과 관련, 문제가 된 차량은 구형이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초 리콜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폭크스바겐그룹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리콜 개시가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한 일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은 준비 과정에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언제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시기를 확정해서 말하긴 곤란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1000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미국 등 북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하고 국내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조치를 밝히지 않아 국내 피해 고객만 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가 향후 판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배출가스 스캔들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의 9월 판매량이 크게 하락했다가 '유례없는 폭탄 세일' 등의 조치로 10월에 판매량을 가까스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리콜 대상 차량들의 경우 올해 중반까지 판매가 완료된 상태이고 최근 판매했거나 앞으로 판매할 차량들은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폭스바겐 디젤차 논란의 불똥이 국내 완성차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모든 디젤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이 제도를 각각 적용,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 금지할 방침이다.

실험실과 실제 도로 간에는 주행 환경이 현격히 달라 차량의 배출가스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인정 기준(0.08g/㎞)의 2.1배를 초과하는 디젤차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제한된 시일 내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거의 모든 승용차와 SUV가 해당되는 중소형차(3.5톤 미만)에 대한 새 제도 적용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3400만대 리콜 주범' 다카타, 에어백 결함 15년전 알았다

WSJ
"검사 조작·고객사에 허위통보
美법인 직원들 계속 걱정해와"

세계적인 에어백 제조업체인 일본 다카타의 노무라 요이치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6일 리콜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어백 결함으로 사상 최대 차량 3400만 리콜 사태를 부른 일본의 다카타사가 15년 동안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카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 일본에서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혼다 자동차 등 고객사로 허위보고를 전한 데 대해 미국의 다카타 직원들이 걱정해 왔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료는 2000~2010년 사이의 실태를 담고 있다. 미국의 다카타 직원들은 다카타 에어백이 실험 단계부터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자료를 고객사에게 제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공기주입장치 회사에서 일한 한 미국 직원은 2000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같은 해 6월 다카타가 혼다 자동차에 제공한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에어백 팽창기 압력장치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지만 다카타가 혼다 자동차에 정상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엔지니어인 밥 슈버트는 2005년 1월 또 다른 에어백 팽창기에 대해 회사가 자료를 꾸몄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검사 자료들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를 꾸미는 행위를 두고 회사에서는 "우리가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다.

슈버트는 "그런 관행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서도 벗어나 있고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양심상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카타의 대변인은 "몇몇 보고서에서 발견된 오류는 에어백 폭발 사고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과거에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보고서에 담긴 적이 있었고 이번 오류도 비슷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의 사소한 실수와 별개로 다카타는 이 사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보고서의 오류는 다카타의 자체 기준, 규약에 어긋나므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0년 사례에 대해 해당 내용은 특정한 종류의 에어백 팽창기에 관련된 것으로 같은 해 10월 문제가 해결돼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 관리에게도 일 년여 전 문제를 알렸다고 했다.

다카타 측은 은폐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카타의 최대 후원자이자 고객이었던 혼다 자동차마저 다카타의 조작을 공식화한 상태다. 혼다 자동차는 지난 4일 "다카타가 에어백 팽창기에 대해 조작된 검사 자료를 제공(했다)"며 타카타 에어백 사용 중지를 발표했다.

이밖에 마쓰다, 미쓰비시, 미국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다카타의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검사결과 조작을 시사하는 자료가 알려짐에 따라 다카타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더욱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다카타 에어백 폭발로 숨진 사람은 8명이며 130여명이 부상했다. 다카타 에어백은 내부 팽창장치가 폭발하면서 파편이 튀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송병형 기자 bhsong@

‘구본준 카드’ 꺼낸 LG… 기업간 거래 힘 실었다

구 부회장, (주)LG로 자리 옮기고
오늘까지 全계열사 임원인사 확정

LG그룹이 26일 2016년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안정 속 체질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업간거래(B2B) 분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대폭 인사를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LG전자 구본준 부회장은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신성장사업추진단장으로 이동, 그룹 차원의 미래성장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LG그룹은 26~27일 이틀간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 LG전자·LG이노텍·LG화학·LG생활건강·LG디스플레이·LG하우시스·㈜LG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27일에는 LG유플러스·LG CNS·LG상사 등이 이사회를 열어 임원인사를 확정·발표한다.

LG그룹은 “세계경기 저성장 기조와 주요 사업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과감하게 돌파하고 미래성장과 시장선도에 도전하기 위한 대폭 혁신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상범 LGD부회장

- 생년 : 1955년생
- 학력 : 연세대 요업공학 학사, 스티븐스공과대 금속공학 석사·박사
- 주요 경력
  - LG반도체입사 (’82)
  - LG반도체 초정밀분석실 (’95)
  - LG반도체 공정기술개발그룹 (’96)
  - LG디스플레이 생산기술센터장 (’01)
  - LG디스플레이 P5공장장 (’04)
  - LG디스플레이 패널센터장 (’06)
  - LG디스플레이 IT사업부장 (’07)
  - LG디스플레이 TV사업본부장 (’10)

홍순국 LG전자 사장

- 생년 : 1960년생
- 학력 : 전북대 금속공학 학사, 재료금속공학 석사, 부산대 금속공학 박사
- 주요 경력
  - 금성사 입사 (’88)
  -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가공기술실장 상무 (’04)
  - LG전자 생산기술원장 (’10년)
  - LG전자 COO 생산기술원 제품혁신그룹장 (’11년)
  - LG전자 생산기술원 장비그룹장 (’12년)
  - LG전자 생산기술원장 (’14년)

이상봉 LG전자 사장

- 생년 : 1957년생
- 학력 : 동아대학교 기계공학 학사/중앙대 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
  - 금성사 기계설계실 입사 (’82)
  - LG전자 생산기술원 연구위원 (상무) (’00)
  - LG전자 생산기술원장 (’05년)
  - LG전자 생산성연구원장 부사장 (’07년)
  - LG전자 MC사업본부 글로벌 오퍼레이션 센터장(’10년)
  - LG전자 COO 생산기술원장 (’11년)
  - LG전자 에너지사업센터장 (’14년)

손옥동 LG화학 사장

- 생년 : 1958년생
- 학력 : 부산대 경영학 학사/McGill대 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ABS·PS 국내영업담당, ABS·PS 사업부장(상무) (’02)
  - 중국 용싱 법인장(상무)(’05)
  - PVC사업부장(부사장) (’08)
  - ABS사업부장(부사장) (’13)
  - 2015년 ~ 현재: 기초소재사업본부장(부사장)

◆지주사로 간 구본준 부회장, 새로운 먹거리 발굴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구 부회장의 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발탁이다.

구 부회장은 소재·부품,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그룹 차원의 미래성장사업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집중 지원하며 관련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고 LG그룹은 설명했다. 구본준 부회장은 LG전자 이사회 의장을 겸한다.

㈜LG의 구본무 대표이사 회장과 하현회 대표이사 사장 2인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 부회장이 그룹 B2B 사업을 맡는 것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중심에서 벗어나 B2B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구 부회장은 과거 LG디스플레이, LG상사 CEO를 맡으며 B2B 사업 역량을 쌓아왔다. LG전자에서도 자동차부품, 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워냈다. 최근 2~3년간은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B2B 사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 2013년 LG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VC사업본부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구 부회장은 신성장사업추진단장으로서 소재·부품,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그룹 차원의 미래성장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 위한 대폭의 혁신 인사

LG그룹 사장 승진자수는 전체 인사폭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부회장 1명, 사장 7명 등 승진자 8명을 배출했다. 지난해 사장 승진자(3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고경영진 인사를 통해 미래 성장과 시장선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LCD 산업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던 2012년 취임한 한 사장은 차별화된 기술선도로 대형 LCD 패널 시장 6년 연속 글로벌 1위와 1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올레드·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홍순국 전무는 2단계나 발탁돼 사장으로 파격 승진, 신설된 소재·생산기술원장을 맡았다. 신성장사업인 에너지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장비 기술 개발로 수주 확대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LG전자 이상봉 부사장(에너지사업센터장)은 태양광사업의 성과 개선과 B2B 사업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 B2B부문장 겸 에너지사업센터장을 맡았다.

LG화학 손옥동 기초소재사업본부장은 석유화학·소재 분야에서 영업이익을 2배 창출한 성과를 평가받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LG화학 김명환 배터리 연구소장도 전기차용 전지 및 전력저장 전지 시장을 선도한 성과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LG생활건강 정호영 CFO 부사장은 LG화학 CFO 사장으로, 서브원의 이동열 부사장이 MRO사업담당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LG 사업개발팀 백상엽 부사장이 부사장 1년차에 시너지팀 사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LG 시너지팀은 기존 사업개발팀과 통합해 그룹 주력사업의 시너지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성 임원으로는 LG생활건강의 이정애 전무가 전무 3년차에 부사장으로 승진, LG그룹의 첫 여성 부사장이 됐다. LG전자의 안정 부장과 LG생활건강 문진희 부장도 각각 상무로 승진, 여성임원 대열에 합류했다. LG그룹내 여성임원은 15명으로 늘었다.

LG그룹은 CEO급(사업본부장 포함)의 계열사간 이동을 통한 최고경영진의 변화로 쇄신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재무통’에 변화 맡긴다

권영수 사장 신임CEO로 내정

권영수 LG유플러스 CEO(내정)

- 생년 : 1957년생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
- 주요 경력
  - LG전자 기획팀 입사 (’79)
  - LG전자 재경부문장 사장 (’06)
  - LG필립스 LCD 대표이사 사장 (’07)
  -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08)
  - LG화학 전지사업본부 본부장(사장) (’12)

LG유플러스를 지난 6년 여간 이끈 이상철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LG그룹 이사회에서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LG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이 부회장(67)의 뜻을 고려해 권영수 LG화학 사장을 LG유플러스 후임 CEO(최고경영자)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통신업계 최장수 CEO로 2010년부터 LG유플러스를 이끌어왔다. 2011년과 2012년 4G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 등을 빠르게 진행해 토대를 닦았다. 덕분에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0%대에서 20%대로 올라섰고, 가입자당매출(ARPU)도 큰 폭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권 사장은 1979년 LG전자 기획팀에 입사해 2000년부터 LG전자 재경팀장 상무를 맡았다. 2006에는 LG전자 재경부문장 사장을 역임했다.이후 LG필립스LCD 대표이사 사장,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 등을 거쳤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재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재무통(通)’으로 손꼽힌다.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권 사장은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사실상 맏형 역할을 하면서 그룹의 통신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에서 자동차 배터리 OLED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권 사장은 ‘만년 3위’인 LG의 통신사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LG그룹이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 간 거래(B2B)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LG유플러스의 기존 사업 방향이 전환될지도 관심사다. LG유플러스가 차기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홈 IoT서비스(IoT@home)’만 봐도 경쟁사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게다가 권 사장은 LG전자에서 CFO로 지내던 시절부터 거침없는 성격으로 상사에게 직언도 과감히 할 만큼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권 사장이 재무통답게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 B2B 사업 확대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문경 기자 hm0108@

‘3인 체제’ 택한 LG전자… 책임경영 강화

기존 정도현 사장에 조성진·조준호 대표이사 선임
구본준 부회장은 지주사로 이동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한 LG전자가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25일 LG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과 MC사업본부장 조준호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번 그룹 인사에서 구본준 부회장이 지주사인 (주)LG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LG전자는 구본준 부회장과 정도현 사장의 2인 각자 대표체제에서 조성진 사장, 조준호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해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확대했다.

특히 각자 대표이사 3명 중 사업본부장 2명을 선임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기존 각자 대표이사인 정도현 사장과 함께 조성진 사장과 조준호 사장은 이후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사업본부는 현재의 ▲스마트폰(MC) ▲TV(HE) ▲생활가전(H&A) ▲자동차부품(VC) 4개 본부 틀을 유지한다. 이우종 VC사업본부장, 권봉석 HE사업본부장, 최상규 한국영업본부장은 유임된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소재기술원’과 생산기술 및 장비 혁신을 위한 ‘생산기술원’을 통합해 ‘소재/생산기술원’을 신설, 그룹 내 소재, 장비 등 기반기술 역량 강화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기존 생산기술원장 홍순국 전무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원장에 임명했다.

또 ‘CFO부문’, ‘지원부문’, ‘글로벌마케팅부문’, ‘글로벌생산부문’, ‘구매센터’ 등 경영지원 및 운영 기능을 관장하는 ‘경영지원총괄’을 신설해 각 사업본부를 측면 지원한다. 경영지원총괄은 현 CFO인 정도현 사장이 겸직한다.

‘해외영업본부’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글로벌마케팅부문’은 유럽지역 대표 나영배 부사장이 부문장을 맡는다. 현 해외영업본부장인 박석원 부사장은 유럽지역 대표로 자리를 옮긴다.

LG전자는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에 의거, 인적 쇄신과 함께 시장 선도에 기여한 인재를 등용했다”며 “특히 B2B, 자동차부품 등 미래 성장사업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한 잠재력 높은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내년 물류시장… '택배·항공운송'이 뛴다

전자상거래 성장·해외 직구 늘어
새로운 물류트렌드 대응능력 필요

내년 물류시장 경기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류 분야별로는 택배업과 항공운송분야가 가장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물류담당 임원, 학계·연구소 전문가 등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 물류시장 평가 및 2016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내년 물류경기 전망은 응답자 49.0%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30.0%), '위축될 것'(21.0%) 순이다.

전년 대비 올해 물류시장 평가에 대해선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가 54.0%였다. '성장세 유지'는 24.0%, '마이너스 성장'은 18.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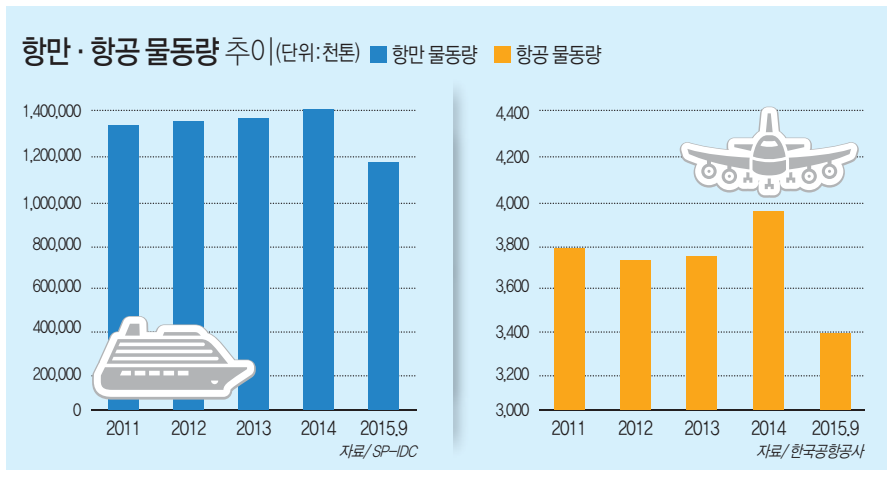
물류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이 '전년보다 악화됐다'(50.0%)고 답한 가운데 '호전됐다'는 8.0%에 그쳤다.

올해 물류시장의 고전은 물류경기를 추정할 수 있는 항만물동량 추이에서 확인된다. 항만 물동량은 2012년 2.1%, 2013년 1.5%에 이어 지난해에는 4.2%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누적 항만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8.4%를 기록했다. 항공물동량도 지난해 6.0%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9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2%에 그치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올해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이 수출입 물량감소로 이어져 물류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쳤다"면서 "내년에도 유가안정,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원자재를 포함한 세계 수출입 물동량 감소가 지속되며 물류경기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 가장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분야로는 '택배'(72.0%)가 꼽혔다. 이어 ▲항공운송(42.0%) ▲3PL(35.0%) ▲창고·보관(33.0%) ▲육상화물운송(21.0%) ▲복합운송주선(19.0%) ▲해상화물운송(19.0%) 등 순이었다.



자료/SP-IDC 자료/한국공항공사

대한상의는 "택배업은 홈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호황이 예상된다. 항공운송도 직구·역직구의 성장으로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입 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해상·육상화물운송은 내년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전문가를 제외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채용계획을 묻자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2.9%, '늘리겠다' 22.0%, '줄이겠다' 4.9%로 집계됐다.

내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투자 계획이 없다'(47.5%)는 기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올해보다 늘릴 것'(29.3%), '올해 투자규모를 유지하겠다'(19.5%), '올해보다 줄일 것'(3.7%) 순으로 조사됐다.

2016년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복수응답)로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변동'(36.0%)을 들었다. 이어 '유가 변동'(34.0%), '환율 변동'(32.0%), '소비 등 국내 경기 회복세'(30.0%), '물류기업간 경쟁심화'(24.0%), '해외 신흥국의 성장률'(24.0%), '물류부문 규제'(16.0%) 등을 꼽았다.

물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과제로는 '새로운 유통·물류트렌드 대응능력'이 46.0%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물류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52.0%)을 선택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물류기업이 재도약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유통과 해외직구·역직구시장을 공략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최신 물류기술을 도입해 물류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아세안, 중국 등 신흥 해외물류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기아차가 26일 기아차 박병윤 전무,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김선규 회장 등 관계자와 여행지원을 받은 교통약자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성플라자(서울 대방동 소재)에서 교통약자 여행지원 100만km 돌파 기념 고객초청 행사를 가졌다. /기아차

기아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

지구 25.6바퀴 돌았다

누적거리 100만㎞ 기념 행사

기아차의 사회공헌사업인 '초록여행'을 통해 교통약자 가족이 여행한 누적거리가 100만km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2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박병윤 전무,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김선규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여행지원 100만km 돌파 기념 고객초청 행사를 가졌다.

'초록여행'은 교통약자와 그 가족에게 여행의 기회를 선사하는 기아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기아차는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직접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운전기사도 지원한다.

카니발 이지무브는 현재 수도권 6대, 부산·경남 2대, 광주·전남 2대 등 총 10대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가족 여행을 위한 경비도 지급하고 임직원들을 다양한 역할의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2012년 6월 출범한 초록여행 사업의 혜택을 받은 교통약자와 가족은 1만7000여명에 달한다. 누적 여행거리는 지구 25.6바퀴에 해당하는 100만km이다.

기아차는 지난 4월 서울시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서울시의 홍보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서울시민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육군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가족을 둔 현역병의 면회와 여행을 지원하는 '호국이의 희망나들이' 사업도 시작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초록여행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초록여행' 이용고객 최세영씨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장애 때문에 고향에 한번도 가지 못했었다"며 "이번 초록여행 차량과 운전 봉사자 덕분에 평생 이루지 못할 소원을 이룬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보다 의미 있고 풍성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장애인 부모 자녀를 위한 '희망캠프', 전국 장애인 여행지 개선을 위한 대학생 '하모니원정대' 등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최대용량·초절전 '128GB D램 모듈' 양산한다

삼성전자 '3차원 TSV 적층' 적용
생산비중 높여 제조경쟁력 향상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차원 TSV 적층 기술을 적용해 최대 용량, 초절전 특성을 동시에 구현한 '128기가바이트(GB) 서버용(RDIMM) D램 모듈'을 본격 양산한다고 26일 밝혔다.

128GB D램 모듈은 서버용인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으로 지난해 8월 선보인 64GB DDR4(Double Data Rate 4) D램 모듈보다 2배 빠른 동작속도를 구현하면서도 소비전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게 특징이다.

와이어(금선)을 이용한 패키지보다 신호 전송 특성이 우수하고 최적화된 칩 동작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 TSV(Through Silicon Via, 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을 사용해 이같이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28GB D램 모듈은 최신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Gb) DDR4 D램칩 총 144개로 이뤄져 있으며 외관상 각 칩을 TSV 기술로 4개씩 쌓은 패키지 36개가 탑재한 모습이다.

삼성전자 128기가바이트 TSV D램 모듈. /삼성전자

◆TSV(Through Silicon Via, 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은 D램 칩을 일반 종이 두께의 절반보다도 얇게 깎은 다음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상단 칩과 하단 칩의 구멍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한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은 데이터센터·서버용 D램 모듈의 한 종류로 빠른 속도와 높은 신뢰성을 특징으로 한다.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은 데이터센터·서버용 D램 모듈의 한 종류로 대용량 구현에 최적화된 형태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이 그린 IT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해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중에 TSV 기술을 적용해 '128기가바이트 DDR4 LRDIMM' 제품도 연이어 양산해 'TSV 풀라인업'을 제공하고, 초고용량 D램 수요 증가세에 맞춰 20나노 8기가비트 D램의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려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최주선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부사장은 " 128기가 D램 모듈 양산으로 글로벌 IT 고객들이 투자 효율성을 더욱 높인 차세대 서버 시스템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시장 선도 고객들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IT 시장 변화를 가속화해 소비자의 사용편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컨슈머 시장용 제품도 적기에 양산해 새로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차별화된 사업 위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황미아 라비오텍 대표(왼쪽 세 번째)가 2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에 '파일랩'을 기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T기업 라비오텍, 서울시각장애인協에

실시간 문서백업 솔루션 '파일랩' 기증

라비오텍(대표 황미아)이 지난 2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남산)에 문서 집중화와 PC 해킹이나 고장으로 인한 자료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실시간 자동 백업 솔루션 '파일랩-나스'와 PC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영구삭제하고 암호화해서 보관 가능한 '파일랩-세이프플러스' 각각 30개씩 라이선스키를 기증했다.

라비오텍은 실시간 문서 자동백업 솔루션 '파일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개인정보 스캔과 영구삭제, 암호화 이관 솔루션 '파일랩-세이프플러스' 등 별도의 전산운영 담당자가 필요없는 무설정 솔루션을 출시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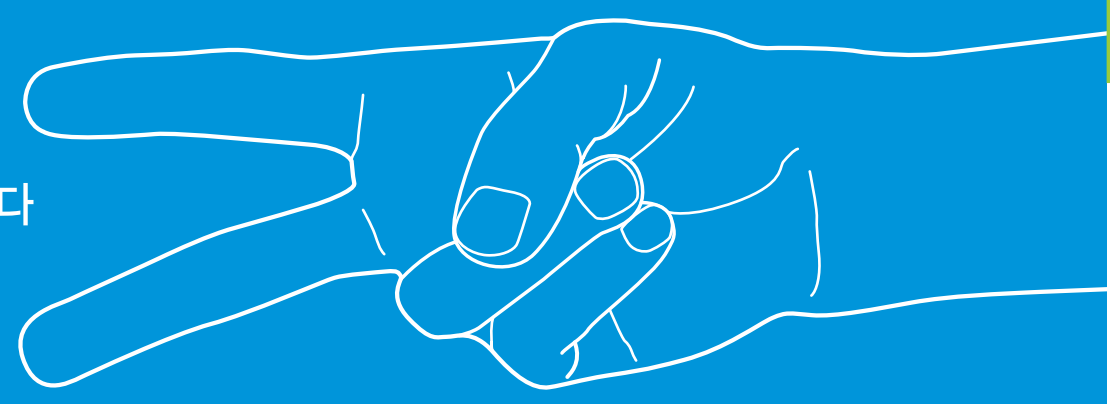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는 기증받은 '파일랩-나스'를 사용해 직원들 PC가 고장 나거나 해킹으로 파손되었을 때도 실시간으로 백업된 문서로 쉽게 복구할 수 있게 됐다.

'파일랩-나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에서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실행되어도 CPU 점유율이 없어 PC에 거의 부하도 주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 사용자 화면에서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실시간 백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 기능으로 스케줄 백업, 확장자별 백업, 폴더지정 백업, 모든 파일 백업이 있다. 특히 사용자 PC에 저장되는 폴더 구조와 동일하게 백업이 되어 장애발생 시 문서 복구 후에도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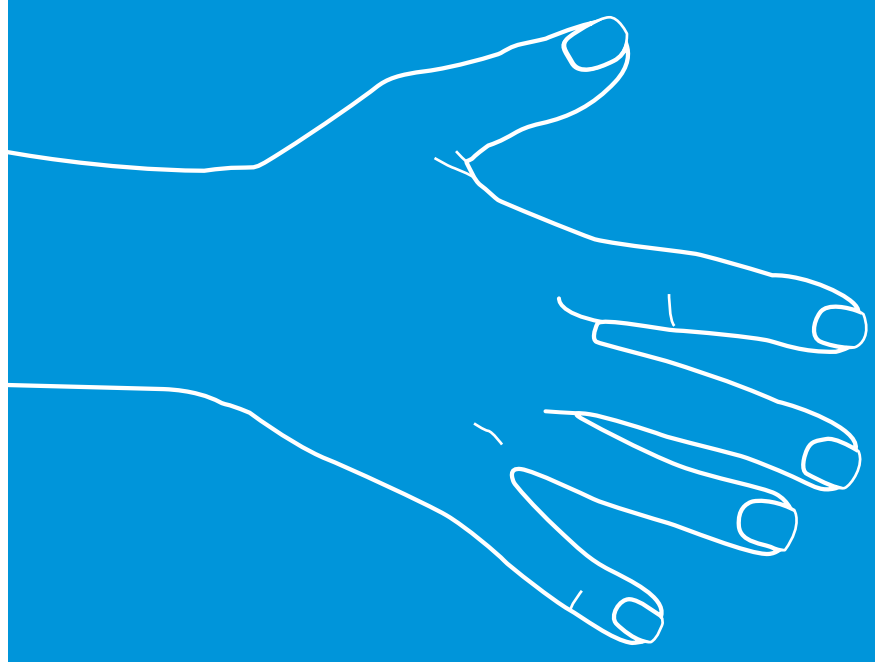
라비오텍 김정환 해외영업·마케팅 상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실시간 자동백업되어 문서 집중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해킹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Beyond the First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5196호(2015.07.28~2016.07.27)



이기는 사람에겐 노하우가 있다



이기는 연금으로 시작하세요

꼬박꼬박 오르는 물가걱정을 이기는 연금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연금
은퇴 후에도 당신의 씀씀이를 이기는 연금
지금 당신은
노후의 자금걱정을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라면 이기는 연금을 시작하세요
국내최대증권사* NH투자증권이 선보이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당신을 이기게 합니다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5년 3월 금감원 공시기준

상담만 받아도 **마음든든**, 티볼리로 **행운든든**

NH투자증권 백세든든연금 EVENT

행사기간 : 2015.7.1 ~ 11.30 | **대상상품 :**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IRP | **대상고객 :** 신규, 기존 가입고객 및 이전고객

EVENT 1 마음든든! 상담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 상담 후 계좌 개설만 해도 사은품 즉시 증정

(택일) 혼합7곡 | 주방세제 | 우산

*지점당 한정수량, 선착순 1만명

EVENT 2 두손든든! 가입 및 이전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 가입 및 이전 고객에게 금액별 백화점 상품권 증정

조건	혜택
3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만원권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만원권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만원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만원권
1억원 이상	30만원권

EVENT 3 기분든든! 적립식 가입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를 통해 신규 적립식 가입 고객 중 20만원 이상 매수하고, 3년 이상 이체 약정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증정

EVENT 4 행운폭발! 티볼리 추첨 이벤트

EVENT2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 티볼리 증정

➡ 최초 300만원 입금시 추첨권 1매 부여,
1천만원 돌파시 2매+1천만원 당 추첨권 추가1매 지급

※ 5만원 초과 경품 수령시 22%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 ※ 추첨 이벤트 사은품 티볼리는 TX A/T급으로 차량가격에 한하며, 취등록세는 당첨자 부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한도 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hwm.com

고객지원센터 1544-0000 NH투자증권

| 르 포 | ‘2015 창조경제 박람회’ 가보니…

자율주행車 타고 가상현실 보고… 미래를 만나다

1100개 기관·업체 참가
의료 재활용 착용로봇 등
창조경제 첨단기술 공유

“처음 와봤는데 체험할 것도 많고 잘 꾸며졌다. 자동차가 지나가기에 누가 운전하겠거니 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더라. 자세히 보니 사람이 없는데도 운전대는 움직이고 있어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저운씨·23)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첨단 미래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과 ‘창조경제 벤처창업박람회’를 동시에 진행하며 29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3면〉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는 가상현실기기를 비롯해 다양한 첨단 미래기술들이 전시됐다. 오른쪽 사진은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의료 재활용 착용식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오세성 기자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박람회는 매년 많은 이들의 땀으로 이뤄진 창조경제를 공유하는 장”이라며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요청할 정도로 모범적인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까지 신규 창업한 기업이 7만여 곳에 이르며 벤처 투자규모도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박람회에는 다양한 기업과 연구원, 대학이 참여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미래부는 이번 박람회에 1100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난 22일 시내주행을 한 자율주행차량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코엑스 D홀에 도로 환경을 구현해 간단한 자율주행과 주차를 선보였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정단 자율주행인프라연구실장은 “차량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미리 구축한 지도를 통해 도로와 장애물 등을 직접 인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하주차장과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이날 박람회는 평일 이른 시각부터 관람객으로 붐비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송하영(자양고·18)양은 “체험할 것도 많고 잘 꾸며졌다”며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 충전소 보급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부스 관계자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여러 곳에서 보급하고 있다고 알려줬다”며 “화석연료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심했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번 박람회에 처음 참여한 미국의 페이스북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은 가상현실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어VR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국내 자연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풍경을 감상한 관람객들은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삼성의 기어VR을 체험한 남태헌(53)씨는 “마치 높은 곳에 떠있는 헬리콥터를 탄 듯 주변 경관을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었다”며 “스키 리프트를 타며 주변을 둘러볼 때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고 말했다.

박람회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최첨단 미래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의료 재활용 착용식 로봇(H-MEX)을 선보였다. 흔히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외골격 로봇의 일종인 H-MEX는 현재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현대자동차의 정경모 책임연구원은 “생활 보조용 로봇과 의료 재활용 착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며 “고령자들이 느끼는 보행의 어려움과 하반신에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토탈 모빌리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H-MEX가 2018년 시범 양산을 시작으로 2020년에 양산이 완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ICT플랫폼을 활용한 ‘신(新)농사직설’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경작 계획과 재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 그중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이 스마트팜 솔루션이다.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등의 환경과 설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 직원 박건율씨는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원격제어를 통한 관리도 가능하다”며 “보다 세밀한 관리를 통해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데 농민들은 무엇보다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게임을 통해 사막화를 극복하는 한화의 트리 플래닛, 카카오의 스마트관광, 현대중공업의 정형외과 수술 로봇, 항공우주연구원의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EAV-3)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박람회에 부스를 내고 참가한 계원예술대학교의 김히제(24)씨는 “더 많은 관람객에게 우리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전국 맛집 음식, 집에서 시켜 먹는다

LG유플러스
‘얍’과 O2O서비스 협력
‘페이나우 샵’ 통해 제공

LG유플러스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얍(YAP)’과 사업 제휴를 체결하고, ‘페이나우 샵’을 통해 얍에서 추천하는 전국 맛집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페이나우 샵은 전국 배달대행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통합 플랫폼으로 가맹점은 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부터 배달 요청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배달대행사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얍에는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로 불리는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추천하는 3800여 곳의 맛집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얍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며, 앱에서 선 결제 시에는 LG유플러스의 3초 간편결제 ‘페이나우’로 결제할 수 있다.

배달 서비스 이외에도 얍에 탑재될 간편결제 ‘페이나우’로 미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치면 매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품을 픽업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O2O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사업 제휴를 시작으로 서비스 연동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향후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 등 각종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O2O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정문경 기자

“샤오미의 스마트폰 성공비결은 ‘신뢰’”

‘2015 창조경제 박람회’
류더 부회장 개막식 강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小米)에서 디자인을 총괄하는 류더 부대표가 ‘샤오미의 혁신 스토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한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류더 부회장이 ‘2015 창조경제 박람회’ 개막식 강연을 통해 샤오미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올해로 창사 5주년을 맞은 샤오미는 10여 명 남짓한 인원의 작은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매년 매출 기록을 경신했지만 스마트폰을 처음 판매할 때는 이게 과연 팔릴까 걱정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5년 전 온라인에서 20위 안(3500원)짜리 옷을 파는 것은 쉽지만 2000 위안짜리 스마트폰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며 “온라인 구매는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샤오미가 구매자들의 그러한 불안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것을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그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숨길 것도 없었다”며 “OS를 먼저 만들고 공개했다. 많은 사용자들이 더욱 많은 문제에 대해 들려줬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 그 문제들을 해결해갔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함께 OS를 만들어가며 회사의 업무과정도 공개했다. 샤오미는 지속적으로 오픈데이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업무공간과 물류창고를 비롯한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신뢰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고객들은 샤오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샤오미에 애정을 갖게 된 고객들이 샤오미 포스터를 만들거나 머리에 샤오미 로고를 새기는 등 자발적으로 샤오미를 일상문화로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류 부회장은 “스마트폰 가격의 절반은 마케팅 비용”이라며 “샤오미는 고객들이 마케팅을 해주기에 원가에 가깝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부회장은 강연을 마치며 “젊은이들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존재”라며 “전 세계의 청년들이 가성비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과학기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샤오미의 꿈”이라고 선언했다. /오세성 기자

진에어
부산~오키나와 정기 노선 취항
189석 항공기 투입… 매일 운항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대표 마원)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일본 오키나와를 오가는 정기노선을 취항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취항식을 연 진에어는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운항한다. LJ241편은 김해공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오키나와에 오전 9시 55분에 도착하고, LJ242편은 오키나와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 김해공항에 오후 1시 15분에 도착한다. 단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김해공항에서 출발한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오키나와는 일본 유일의 아열대 기후로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와 다양한 관광 자원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진에어는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1월 14일 사이에 운항하는 부산~오키나와 노선 항공권 예매를 한 고객이나 오키나와 여행 관련 간단한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오키나와 우드페커 카라반 리조트 숙박 패키지, 쿠다카섬 투어 패키지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또 부산~오키나와 취항 소식을 SNS에 공유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인천 또는 부산~오키나와 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 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

네이버페이, 범용성 강화… 다양한 은행 활용 가능

국민·SC은행 등 제휴처 확대
연내 금융사 20곳 이상 확보

네이버는 KB국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제휴사로 추가 적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는 신한, 현대, 삼성, BC, 국민, 하나, 롯데, 농협 등 8개 카드사와 농협, 신한, 우리, 기업, 부산, 경남, 수협, 우체국 등 8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연내 씨티카드가 제휴사로 추가되면 20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네이버페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휴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6만70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과 간편 송금까지 가능하다.

네이버의 최진우 페이셀장은 “KB국민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합류로 시중에 유통되는 은행의 92%, 카드의 경우 98% 이상 커버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카드나 주거래 은행에 구애받지 않고, 더 다양한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1%라도 추가수익 챙겨야… 3低 대비 노후준비를”

〈저성장·저금리·저물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자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준비, 자녀양육, 주택마련 등 삶에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면서 20~30년 동안 유용할 노후자금까지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금융권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만나 그들의 자산관리 비법을 들어 봤다.

100세 시대 자산관리 릴레이 인터뷰

“안전하고 높은 수익의 상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

황 재 훈 장기자산관리파트장

황재훈 파트장에게 “노후준비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금 시작하라. 지금도 늦었다”고 했다.

황 파트장은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 이른바 3저(低)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년 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1%의 추가수익률도 챙겨라”

그는 어느 광고카피 처럼 열심히 일하고 떠나고 싶지만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긴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노후는 결국 얼마나 빨리,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해 왔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격차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당장의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지금 당장(Right Now!)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모으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으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황 파트장은 “장기자산의 경우 단 1%의 추가 수익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상품이 아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분산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세후수익률 2% 연 복리로 납입금액의 2배를 모으려면 36년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세후수익률 3% 연 복리로 운용하면 24년이면 된다. 12년이 단축되는 것이다.

◆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은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황 파트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익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험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층은 과감하게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도전하기도 한다.

황 파트장은 “어떤 상품에 투자했을 때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상품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할 것을 권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쪽 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국내와 해외,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수익률 등을 점검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재구성)하는 ‘부지런함’도 갖춰야 한다는 것.

◆ “연금저축계좌, 선택 아닌 필수”

퇴직연금가입자를 중심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퇴직연금수령(예정)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 시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기다.

황 파트장은 IRP와 같이 절세혜택이 큰 상품 가운데 ‘연금저축계좌’를 가장 먼저 챙기라고 조언했다.

황 파트장은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 아닌, 생애 전체에 걸쳐 평생 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툴(Tool)이자 무기”라며 “계좌 하나에 다양한 펀드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산관리 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저축계좌 다음으로 IRP를 추천하고 소장펀드와 청약저축을 절세상품으로 소개했다.

◆ “안전성만 좇으면 노후가 위험해진다”

연금은 노후 대비 목적이기 때문에 상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이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래서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찾는다.

황 파트장은 이들 상품이 “정말 안전해 보이느냐”고 되묻는다.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황 파트장은 “예금금리 1%대 초저금리 시대의 진정한 안정성은 ‘자기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인가’로 판단해야 한다”며 “때문에 앞으로 연금 운용은 모으는 것 못지않게 적정한 수익률이 나오도록 운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NH농협생명, 소외계층·농가 함께 돕는 ‘김장나눔’ 행사

NH농협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의 소비부진, 재고량 과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김장채소 소비를 확대하고 우리사회 소외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다. 농협생명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 660포기를 포함한 총 1300포기의 김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우리주변 소외이웃에게 전달된다.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이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NH농협생명

P2P·크라우드펀딩?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어려운 용어로 소비자 현혹
구직자·가정주부·노인 대상

P2P(개인 대 개인)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신(新)금융상품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P2P,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원금 보장과 함께 연 평균 12%의 수익을 약속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기부릴레이를 앞세워 2개월 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벌 수 있다는 식이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미취업자나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밴드, 카페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해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한은 “美 금리 올려도 韓 금리인상엔 시간 걸려”

“금리 결정땐 국내 경제상황 먼저 고려 할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내 경제를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순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본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내 언론에 의하면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10월 의사록이나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발언을 비춰 볼 때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이제 그 시기보다는 향후 인상속도와 그 최종 수준으로 초점 이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최근 미국 경기와 물가동향을 보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실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향후 미 금리 상승 속도는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가속화, 국제금융 변동성 심화 등 글로벌 금융안정 문제와 세계경기 회복에 주는 부담 등을 우려해서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러 보인다”며 “사실 그동안 ‘더 내릴 수 있나, 아니면 그냥 머물러야 하나’하는 고민에서 ‘언제쯤 올리지’하는 고민이 하나 더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가 금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주요국 통화정책이 참고사항인 것은 사실이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역시 국내 경제상황”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지 않는 한 금리인상을 금통위가 고민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은 “최근 일본의 경제를 보면 지난 3년간 대대적인 금융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구조조정 없는 장기침체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고, 이에 더해 출산율 제고, 첨단기술개발 강화 및 고용친화적 성장 등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회복지원을 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 4월 금통위원 네 명의 동시 퇴임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새로 네 명이 오더라도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소임을 잘해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KB국민은행, 거동 불편한 이웃에 차량 40대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 40곳에 차량 40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은 윤종규 KB국민은행 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기업 돈 풀어야 '한국 증시 저평가' 넘는다

곳간 여는 기업 ③ 보수적 주주환원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외상장사, 자사주 매입해 배당금↑
"바람직한 주주환원 방향 검토 필요"

구글, 애플, 코카콜라 등 해외 기업들은 일찌감치 주주환원책을 써 주주를 끌어 안았다. 이는 기업가치와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사주 매입 배당 성과, 벤치마크 웃돌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이 잦은 100개 종목 주가를 산출해 만든 'S&P500 자사주 매입기업지수'는 최근 5년 새 107.76% 올라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수익률(76.58%)을 크게 앞질렀다.

미국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 S&P500 기업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지난 2009년 1380억 달러에서 지난해 55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2.1%에 달했다. 올해도 S&P 500기업들은 3·4분기 현재 56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들 기업의 배당금은 2009년 1956억 달러에서 지난해 3504억 달러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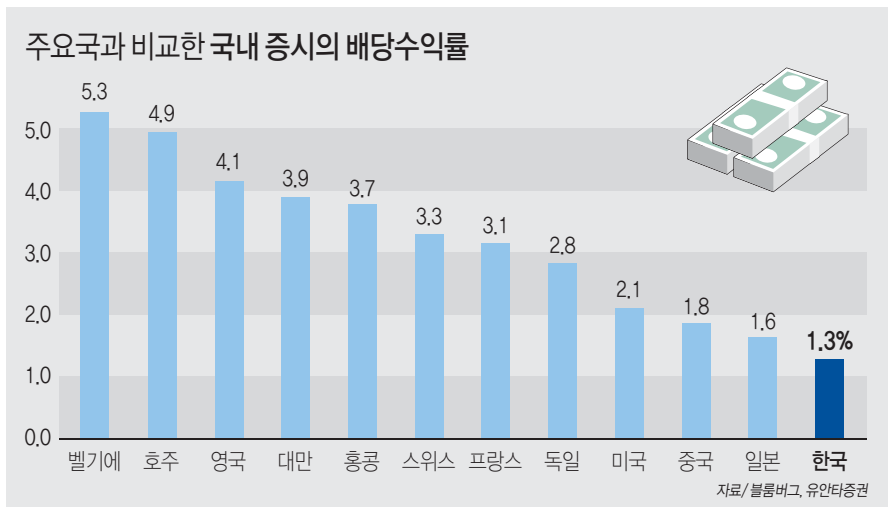
덕분에 지난 25년간 배당금이 늘어난 52곳으로 짠 S&P500 배당지수(Dividend) 지수는 2009년 이후 21.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역시 S&P수익률을 웃돈다.

일본도 주주환원 정책은 같은 효과를 냈다.

그런데도 한국의 주주이익 환원 정책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S&P500 기업은 최근 6년간 순이익의 평균 55%를 자사주매입에 투자한 반면 한국에서는 순이익의 2%만 자사주매입에 썼다. 미국 증시가 주주이익 환원 정책의 힘으로 상승할 때, 한국의 보수적인 배당·자사주매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켰다는 평가가 많다.

시가총액과 비교한 자사주 취득 수익률도 0.2%에 머물고 있다. 미국(2.8%), 독일(1.5%), 일본(0.7%)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증시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의 경우 취득 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관성 있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은 주가 하락 시, 하방경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료/블룸버그, 유안타증권

◆'과유불급'

다만 지나친 주주 친화정책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헤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양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미국 기업의 주주환원과 관련해 나오는 우려 중 하나는 현금부족으로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주주환원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주주환원이 늘었음에도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비용은 2009년 4543억 달러에서 지난해 7264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도 1655억 달러에서 2541억 달러로 연평균 9.0% 늘어났다.

양 연구원은 "한국 상장 기업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수익을 주주환원 또는 투자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현금성자산 형태로 과도하게 축적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주환원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美·中… '빅2'에 달렸다

❾ 2016년 금융시장, 봄이 오나?

美 금리 0.25%p 오르면
세계경제 안정화 가능성
中, 서비스업성장에 달려

올 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했던 3.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하향된 배경은 신흥국의 경기부진이다.

신흥국의 경기 부진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락이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며 원자재 수출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고, 이로 인해 원자재 교역액이 덩달아 감소하면서 아시아 수출국 경기까지 약화시켰다.

국내 경제 역시 전년도에 비해 성장이 저조했다. 다행히 메르스와 가뭄 등 국내 악재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 경기 부진으로 올해 국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제로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1.8%포인트 성장 기여도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이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성장 기여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3분기까지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쳐, 전년도에 기록한 1.4%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 경기 부진이 제조업 성장 약화로, 결국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관심은 내년 세계경제가 부진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가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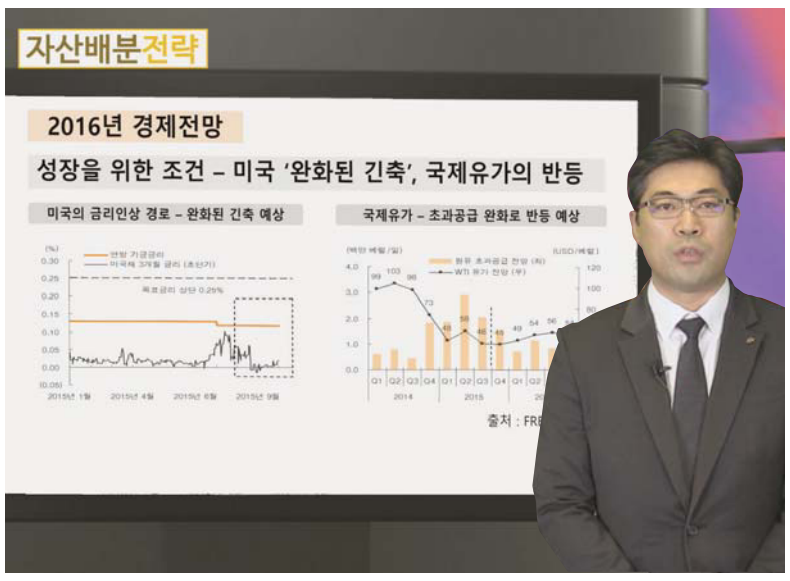
미국은 오는 12월 중순쯤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0.25%포인트 수준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만일 예상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많다. 지금까지 중국은 제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성장이 경기둔화를 완충시켜주고 있는 형세다. 중국이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 준다면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처에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예상대로 미국과 중국, 국제유가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글로벌 교역 역시 개선되며 전세계 성장률도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정희 매크로전략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투,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 5종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26일부터 이틀간 원금비보장형 ELS (주가연계증권) 상품 5종을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된 'ELS 11843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노낙인(No Knock In) 구조로 S&P500, 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월수익 지급은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의 60% 이상이면 0.55%(연 6.60%)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신한금융투자

'달러표시 中국유기업 펀드' 목표 넘었다

한국투자 1년만에 수익률 5% 달성
내달 3일 국내 채권형펀드로 전환

중국 주요 국유기업이 달러화로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한국투자 달러표시 중국국유기업 목표전환형 펀드(채권혼합)'가 목표 수익률 5%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설정되어 운용 1년 만에 목표수익률 5%(기준가 1050원 이상)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운용 1년 내 초과 수익률을 낸 것으로 최근 1년간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저 1.64%에서 최고 2.48% 인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다.

펀드는 다음달 3일부터 국내 채권형 펀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출시 당시 약 2주간 120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펀드 판매회사의 요청으로 '한국투자 중국국유기업 목표전환형(채권혼합) 2호' 를 출시해 운용되고 있고, 추가 불입이 가능한 '한국투자 달러표시 중국

채권펀드(채권)'는 현재 312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현재 추가 가입이 가능한 '한국투자 달러표시 중국채권펀드(채권)'는 국내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달러표시 중국채권에 투자한다. 달러표시 중국채권은 연간 4% 전후의 높은 쿠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저금리 상황에서 좋은 투자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달러표시 중국채권의 장점은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평정한 국제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크레딧 인덱스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달러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운용은 2011년 중국 상해 현지에 리서치센터를 개소해 다년간 중국 자본시장 내 독보적인 네트워크와 운용경험 등 리서치 노하우를 쌓았다. 중국 최고수준의 맨파워를 갖춘 한국운용 상해 현지 리서치센터와 서울 본사의 밀착된 업무 공조를 통해 운용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운용성과 제고가 가능하다.

상해사무소에서 운용중인 '한국투자 네비게이터중국본토 증권펀드(주식)'는 1년 48.9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운용 해외채권운용팀 김윤진 팀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표시 중국채권의 경우 유사 등급대비 가격매력도가 우수하고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손실에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땅 위의 지하철’ 간선급행버스… 노선 옆 아파트 好好

〈BRT〉

교통 편의성·개발 호재에 8천만원 웃돈 등 청약률 ↑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단지 앞 BRT정류장 들어서 하루 200통 문의 등 관심 ↑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조감도. /호반건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은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다. 상품설계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교통 인프라에 따른 이동 편의성은 임대수익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로 자리잡은 세종시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 정류장과의 인접성에 따라 분양 승패와 집값이 좌우된다. BRT는 버스에 철도 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중앙전용차로, 환승시설, 버스우선신호시설 등을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땅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중간에 정체 없이 외곽에서 도심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의 장점과 올해 말 세종시 BRT구간 전면 개통(23㎞)을 앞둔 개발 호재 등으로 역세권 아파트처럼 BRT 정류장 인근 단지 또한 선호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BRT 인접 단지는 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 중이다.

BRT정류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한솔동 ‘퍼스트프라임 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5월 3억1000만원선에 거래됐으나 비교적 거리가 먼 고운동 ‘가락마을 8단지’ 전용 84㎡는 같은달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BRT 인근 단지 프리미엄으로 8000만원이 붙은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초 대전에 공급한 ‘관저 더샵’은 지난 4일 1순위 청약접수에서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712가구 모집에 1만9574건이 접수돼 평균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하철의 장점을 갖춘 버스체계 BRT는 교통체증 가능성이 적어 국내에 도입되자마자 선호도 높은 대중교통으로 부상했다”며 “자연스럽게 BRT 이용 편의성이 큰 교통 호재로 작용해 BRT 정류장 인근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호반건설이 올해 평택 소사벌에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단지 앞에 BRT 정류장이 들어서 분양 이전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선에 지어지는 BRT정류장은 단지에서 불과 약 50m 거리에 있다. 입주민들은 이를 이용해 평택 소사벌지구는 물론 용죽, 현촌지구 등 평택 내 주요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옆 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지구 내 다수의 교육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남측으로는 중심상업지구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평택시청 등이 인접해 있다. 평택역과 안성IC도 가깝다.

주변 개발 호재도 줄을 잇고 있다. 인근 고덕산업단지에 오는 2017년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100조원 규모 투자로 조성될 예정이다. LG전자 디지털산업단지 확장(진위2산업단지), 미군기지 이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는 지제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 73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589가구 ▲84㎡B 74가구 ▲84㎡C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로만 지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전체가 전용 84㎡만으로 구성됐지만 전 타입 4베이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와 현관 창고, 팬트리, 김치 냉장고장, 대형 안방 드레스룸, 붙박이장(자녀 방) 등의 설계도 적용된다(타입별 상이). 주부들의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주방 가구의 배치도 눈에 띈다.

황철수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분양본부장은 “사전 홍보관 운영할 때부터 견본주택 오픈까지 하루 평균 200통의 문의 전화가 잇따를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며 “평택의 위례로 평가 받는 소사벌지구에서도 입지를 갖춘 만큼 평택 내부 수요는 물론 천안, 안성 등 광역 수요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27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30(비전고 옆)에서 오픈한다. 입주는 오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SK건설-밀알복지재단, 저소득 가정 방한물품 전달

SK건설과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희망메이커 후원가정에 보내줄 방한키트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희망메이커는 임직원 기부로 마련한 기금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SK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SK건설은 2011년부터 서울 7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690여 명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SK건설 임직원과 걸그룹 달샤벳 멤버(녹색조끼)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10월 미분양 주택 3만2221가구

전월 대비 303가구 줄어들어
대전·경남 등 지방 큰 폭 감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2221가구로 9월보다 303가구(0.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에 기존 미분양 물량 5744가구가 해소된 반면 신규 미분양은 이보다 적은 5441가구 늘면서 전체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특히 대전, 충남, 경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10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9월 1만4549가구보다 1027가구(7.1%) 증가한 1만5576가구였다. 반면 지방은 9월 1만7975가구보다 1330가구(7.4%) 감소한 1만6645가구로 나타났다.

전용 면적별로는 85㎡를 넘는 중대형 미분양과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했다. 85㎡ 초과 주택은 7248가구로 9월보다 154가구 감소했고, 85㎡ 이하 주택은 같은기간 149가구 증가한 2만4973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 1만1477가구보다 685가구(6.0%) 감소한 1만792가구로 집계됐다. /박상길 기자

‘동화자연도어’로 門시장 똑똑

동화기업
ABS·연동도어 제품 출시
자연몰딩과 시너지 기대

동화기업은 26일 ‘동화자연도어’ 출시로 도어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표적 국내 바닥재 브랜드인 ‘동화자연마루’로 잘 알려져 있는 동화기업은 지난 달 천장재 ‘동화에코톤(ECOTON)’을 내놓은데 이어 도어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보통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도어와 몰딩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번 동화자연도어를 통해 동화기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동화자연몰딩과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동화기업이 론칭한 ‘동화자연도어’에서 주력으로 내세운 상품은 ABS도어와 연동도어다. 우선 ABS도어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소재를 사용해 습기나 수분에 약한 목재 도어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물이 닿아도 쉽게 썩지 않으며 부풀림이나 곰팡이 등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동화기업의 ABS 도어는 30개의 컬러로 구성됐다.

연동도어는 보통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설치하는 유리가 들어있는 중문(3연동도어)을 말한다. 동화기업의 연동도어는 특허출원한 나무와 PVC를 결합한 소재의 제품이어서 휨과 뒤틀림에 안정적이고 금속 소재의 차가운 느낌이 없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대 회장에 황기현 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1대 회장에 황기현 경기북부 지부장(사진)이 선출됐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국 1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11대 회장 선거 결과 황기현 후보는 총 투표수 2만1286표 중 7785표(36.6%)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이다.

황 회장은 대구한의대 풍수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파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을 맡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8만90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해 협회의 공제·교육사업, 부동산 정책연구, 정보망 사업, 홍보와 대 회원 서비스,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상길기자

1조5천억원 규모 캐나다 댐 공사
삼성물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100MW 규모 수력발전용 댐
악시오나 등과 컨소시엄 구성

삼성물산이 캐나다 싸이트-씨(Site-C) 댐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캐나다 벤쿠버 북쪽 피스강에 발전용량 1100메가와트(MW)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현지 전력 공기업 3위 업체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전력청이 발주했으며 공사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스페인 건설업체인 악시오나, 캐나다 건설업체인 페트로웨스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한다. 삼성물산 지분은 전체의 37.5%(약 5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발주처와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건설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캐나다 댐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스페인 유력 건설업체인 악시오나는 캐나다 교량 프로젝트 입찰에서부터 협업을 진행했으며 이

캐나다 싸이트-씨 댐 프로젝트 조감도. /삼성물산

같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댐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등 선진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수행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고객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선진 건설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한 집 건너 또 한 집… 무한리필 전성시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연어 무한리필집 '연어왕국'이 제공한 연어 무한리필 세트.

'공정위 등록' 브랜드 200개 달해
고기·해산물·분식 등 메뉴 다양
품질개선 문제는 숙제 남아

바야흐로 무한리필점 전성시대다. '값싸고 푸짐하게'라는 구호가 시중에 먹혀들면서 다양한 음식 메뉴의 무한리필점이 계속해 생겨나고 있다.

이전까지 무한리필점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구이전문점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고려해 메뉴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가 총 200여개에 달한다.

한우 등심, 스테이크, 삼겹살, 족발 등 고기류와 랍스타, 장어, 참치, 연어 등 해산물류, 분식류까지 메뉴도 다양해졌다. 고기부페에서 장어, 참치, 연어 등 비교적 고가 메뉴는 물론 떡볶이 같은 분식메뉴까지 무한리필 대열에 합류했다.

이 중 최근에 소비자로부터 각광 받는 무한리필 메뉴로는 참치와 바다장어, 스테이크, 랍스타, 연어 등이다. 최근에 생겨난 연어 무한리필점 브랜드만 20개가 넘을 정도다.

업계는 이들 메뉴가 시중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비교적 고가 메뉴인 점을 꼽는다. 장어와 스테이크, 랍스타 등은 객단가가 높은 메뉴다. 어지간한 주머니 사정으로는 배부르게 먹기 힘든 메뉴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이 고객을 끌어모으는 경쟁력이다.

통상적으로 참치는 2만3000원, 바다장어 2만9000원, 스테이크 2만원, 연어 1만4000원에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 일식 전문점이나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수량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이들 외식업체들은 식사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을 둬 손실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떡볶이, 돈까스 등 상대적으로 값싼 메뉴를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브랜드도 생겨났다.

떡볶이 무한리필 브랜드 '투 쭌 스토리' 같은 경우 시간제한 없이 5900원에 떡볶이를 맘껏 먹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님들은 시중에서 고가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싸게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리필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가족과 직장인들이 무한리필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렴함이 무기인 무한리필 음식점 이용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고마진을 위해 등급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확한 부위를 공개하지 않는 업주들이 적지 않아서다.

김상직 소비자권익보호 대표는 "무한리필 시장이 롱런하기 위해선 손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품질이 뒤따르지 않으면 호황도 계속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주말 쇼핑 가이드

美 '블랙프라이데이' 맞서
유통업체 대형 기획전 봇물

이번 주말은 미국 연중 최대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한국시간 11월 27일)를 국내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할인행사가 열린다. 유통업체들은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해외직구족의 발길을 돌릴 만한 행사들을 대거 기획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이달 29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남성패션 박람회'를 열고 12개 브랜드를 40~7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에서는 같은 기간 8층 행사장에서 '영패션 아우터 초대전'을 열고 보브, 시슬리, 베네통 등 6개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구리점도 같은 기간 '여성패션 탑브랜드전'을 통해 정호진, 리본, 벨라디터치 등 6개 브랜드를 40% 가격을 낮춰 내놓는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는 내달 2일까지 3층 행사장에서 '노스페이스 다운재킷 특가전'을 벌이고 인기 구스다운을 50~60% 할인판매 한다.

지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때 쇼핑객들로 붐비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29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최저가 기획 대전'을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점별로 대형 할인전을 열어 이월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신촌점, 목동점, 중동점, 대구점에서는 '탐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한다. 총 30억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26일부터 명품 브랜드 시즌오프가 시작된다. 필립플레인, 끌로에, 랑방, 지방시 등이 20~30%, 스텔라맥카트니, 돌체앤가바나, 닐바렛, 골든구스디럭스, 도나카란, 질샌더, 에르마노설비노, 아크리스 등이 30% 가격을 인하한다. 또 남성 의류 브랜드는 알렉산더맥퀸, 쟈닉앤볼테르, 간트러거, 벨스타프, 디젤 등이 30% 시즌오프에 돌입한다.

천안 센터시티점은 내달 6일까지 방문 고객 대상으로 '크라이슬러 200'을 경품 증정하는 행사와 함께 '영캐주얼 아우터 대전'도 마련한다. 수원점에서는 동우모피·태림모피 특가전을 29일까지 연다.

AK플라자 분당점은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층 이벤트홀에서 '노스페이스·K2 그룹 초대전'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노스페이스, K2, 아이더 등이 참여하며 최대 70% 할인판매한다.

수원점은 29일까지 국제모피, 이은영모피, 윤지모피 등의 모피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한다.

롯데마트는 랍스터, 킹크랩, 제주 은갈치, 국내산 딸기, 감귤, 블루베리, 버섯 등을 저렴하게 내놨다. 수입 소고기 전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롯데마트 PB(Private Brand) 상품인 초이스엘 아몬드, 수프리모, 꿀생강차, 웨하스, 세제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겨울 의류와 전기장판, 핫팩, 스프레인 체인 등의 월동 준비 용품도 최대 30%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홈플 블랙 위크'를 열고 계란, 라면, 딸기, 삼겹살 등의 식품부터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까지 특가 판매를 한다. 또 '무조건 50% 반값' 행사에서는 영양 12곡, 멸치, 한우 곰거리, 브랜드 김, 고추장, 참기름, 샴푸, 바디워시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김성현 기자

새로 나왔어요

AP '클렌징 인핸서 골드 셀렉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논스톱' 관리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기기 브랜드 메이크온에서는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클렌징 인핸서 골드 셀렉션'(사진)을 출시한다.

'골드 셀렉션'은 진동클렌저 '클렌징 인핸서'와 겨울철 초 미세먼지를 부드럽게 딥 클렌징 해줄 '화이트 브러시', 꿈치 케어용 '바디 브러시' 그리고 '골드 마사저' 총 3가지의 어플리케이터와 무선충전기로 구성됐다. 페이스부터 바디, 마사저까지 토탈 홈케어가 가능한 기기들을 묶음 상품화 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22만5000원.

/유현희 기자 yhh1209@

아가방 '숨쉬는 마스크'
4중 나노필터… 미세먼지 차단 탁월

아기용품 전문 브랜드 아가방은 아동용 기능성 '숨쉬는 마스크'를 26일 출시했다.

숨쉬는 마스크는 식약처가 허가한 KF80 황사마스크다. 4중 구조의 나노필터가 특수 처리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탁월하다. 또 아이 얼굴 모양에 맞게 끈 조절이 가능하다.

사용 연령에 따라 사이즈를 조절해 착용할 수 있다. 전국 아가방앤컴퍼니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팩(2개입)에 5000원.

/유선준 기자

롯데칠성 '허니사랑 유자사랑'
한 입에 맛 보는 달콤·상큼

롯데칠성음료는 달콤한 아카시아 벌꿀에 상큼한 유자를 더한 '허니사랑 유자사랑'(사진)을 26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근 식품업계에서 인기를 끈 '허니(Honey)'와 유자를 섞은 음료로, 벌꿀의 달콤함과 유자의 상큼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240㎖ 캔으로 온장고를 통해 따뜻하게 즐기거나 취향에 따라 시원하게 마실수 있다.

/유선준 기자

이랜드그룹은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의 새 단장 공사를 4개월 만에 마치고 26일 그랜드오픈 했다.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은 6만7920㎡ 규모로 지하1층~지상5층의 2개관과 지하1층~지상1층의 별관으로 구성됐다. 215개 패션브랜드와 68개 외식 브랜드 등 총 283개의 브랜드가 입점했다. /이랜드

강남 뉴코아 '도심형 아울렛' 승부수

이랜드, 강남 최대 규모로 재개장
6만7920㎡, 283개 브랜드 입점
"합리적 쇼핑 랜드마크 자리매김"

이랜드그룹은 강남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심형 아울렛인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을 4개월 간의 공사 끝에 26일 그랜드 오픈했다.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은 6만7920㎡(약 2만500평) 규모로 지하 1층~지상5층의 2개관과 지하1층~지상1층의 별관으로 이뤄졌다. 215개 패션브랜드와 68개 외식 브랜드 등 총 283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지하 1층에 식품 전문관인 킴스클럽과 킴스 푸드 스트리트가 자리잡았으며 1층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편집숍 'NC PICKS'와 해외 명품 직수입 매장인 럭셔리 갤러리, SPA브랜드 스파오 등이 입점했다.

2층은 미쏘, 라템 버터 등 SPA 브랜드들과 영캐쥬얼 브랜드가 3층에는 아동복과 여성 패션 브랜드가 자리 잡는다. 4층에는 라이프스타일숍 모던 하우스와 스포츠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5층에는 샹하오, 자연별고, 애슐리 등의 외식브랜드와 함께 신사, 아웃도어 브랜드가 들어섰다.

또 10~20대 젊은 층과 30~40대 가족단위 쇼핑객들이 다양하게 있는 상권 특성을 반영해 가족형 외식공간과 맛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강조된 식음료(F&B) 매장도 선보인다.

이랜드 관계자는 "뉴코아 강남점은 오픈한 지 35년이 지난 역사와 정통성이 있는 곳인 만큼 이번 그랜드 오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며 "합리적인 쇼핑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심형 아울렛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새로운 쇼핑과 외식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유산균 바꿨더니… 리뉴얼 1년 만에 매출 187%↑

매일유업
L-GG 복합 유산균으로 교체
발효유 시장서 '나홀로' 독주

매일유업은 대용량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매일바이오'(사진)의 매출이 리뉴얼 출시 1년 만에 187%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제품 내 유산균을 'L-GG 복합 유산균'으로 교체한 후 월 평균 매출이 170% 올랐다. 평균 성장률이 3년 연속 연 1%대였던 발효유 시장에서 매출이 2.7배 이상 급증한 것.

유산균으로 차별화된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60%를 기록하며 전체 발효유 시장에서 나홀로 독주했다는 평가다.

요거트 본연의 맛과 풍부한 유산균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호평받은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매일유업은 분석했다. 전체 떠먹는 요거트 시장에서의 플레인 요거트 비중은 2013년 14%에서 2015년 32%로 커졌다.

/유선준 기자

올 겨울 아웃도어 업계가 선택한 승부색은? 눈 같은 '화이트'

연령·나이·性 구분없이 선호
업계 '과감한 변화'위해 선택

올 겨울 아웃도어가 화이트를 입었다.

블랙, 블루, 네이비로 대표되던 아웃도어 다운재킷이 눈처럼 하얀 색을 올 트렌드 컬러로 선보였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주얼과 아웃도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비즈니스룩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접목된데 이어 전통적인 색상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이트 컬러는 도시적인 세련됨과 순백의 고급스러움을 모두 보여 줄 수 있지만 그동안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적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되기 시작하며 아웃도어 업체들은 강점인 기능성은 물론 '등산복'의 한계를 넘기 위한 변화의 시도를 화이트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K2 매킨리(왼쪽)·블랙야크 아이스 엣지(가운데)·네파 알라스카 다운재킷(오른쪽 위), 아이더 제레미 다운재킷(오른쪽 아래).

K2에서는 엉덩이를 살짝 덮는 미드 랭스 스타일 헤비다운 '매킨리'를 선보인다. 눈처럼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제품은 방한 효과는 기본이며 방수 기능도 더해져 겨울 캠핑과 스노우보드복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천연 라쿤 트리밍 후드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렸다. 캐주얼과 비즈니스룩에도 어울리는 멀티 아이템이다.

네파는 스타일을 생각하는 재킷 '알라스카 다운재킷'을 내놨다. 극지방 탐험대 콘셉트의 긴 길이로 제작돼 어떤 의상과도 어울리는 것이 장점이다.

또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길이감과화이트 색상이 어우러져 여성스러움 느낌을 배가시킨다. 초헤비급 다운 충전량과 방수 소재, 발수 코팅을 적용해 눈싸라기 날리는 축축한 날씨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해 준다.

아이더는 도심에서의 활동성을 높인 '제레미 다운재킷'을 출시했다.

스포티한 스타일의 중다운 재킷으로 젊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며 활동성이 우수하다. 뛰어난 보온성에 가벼운 무게를 가져 일상생활에서 아우터로 부담없이 착용 가능하다. 심플한 디자인은 오히려 아이더의 장점이다. 화이트로만 디자인된 제레미 다운재킷은 다양한 컬러와 스타일과 매칭이 가능하다.

블랙야크는 라이프스타일 다운재킷 '아이스 엣지'를 선보였다. 간결하면서도 톤다운 된 색상으로 특히 정장과의 조화가 좋다. 직장인들이 아이스 엣지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정장위에 걸칠 재킷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기능면에서는 구스 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벌키성과 보온성을 강화했으며 고어텍스 2ℓ 소재를 사용해 100% 방수와 우수한 방풍 기능을 자랑한다.

업계는 기존 인기 컬러를 화이트 컬러가 대체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아웃도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아웃도어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레저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를 표방하면서 주 타깃층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디자인과 색상면에서도 변화를 꾀하며 2013, 2014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09년 2조원 대에서 지난해 7조원 대까지 급증했다 올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세계최고 '미생물 발효 기술' 선보인다

2015 창조경제박람회서

CJ제일제당은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위원회 소속 21개 부처 및 11개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종합행사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람회에서 'CJ 미생물 발효기술의 융합과 창조'를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미생물 발효기술력과 전통식품 발효기술력을 소개한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축적된 미생물 발효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 바이오산업을 위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성장하겠다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메치오닌, 라이신, 트립토판, 쓰레오닌, 발린) 제품 등을 전시했다. 또한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화장품, 에너지 드링크, 자동차 코팅제, 운동복, 유산균 건강식품 등을 선보인다. /유선준 기자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CJ제일제당이 참가하는 2015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3년간의 정부와 민간 창조경제 성과를 집대성해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창조경제 벤처창업박람회'와 함께 열린다. /뉴시스

대한치주과학회의 '포스터 우수상'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방은경교수(왼쪽 세번째)와 연구팀.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방은경 교수팀

대한치주과학회 '포스터 우수상'

'약물성 치은 비대의 재발' 주제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방은경 교수팀이 최근 개최된 제55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상을 받았다.

방 교수는 '약물성 치은 비대의 재발과 관련된 요인'이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제출했다. 약물성 치은 비대는 진경제로 사용되는 페니토인과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A 등에 의해 치은이 증식하는 질환이다. 발생률은 사이클로스포린A가 25~30%, 페니토인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은 비대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방 교수는 재발 증례들을 관찰한 결과 지속적인 약물의 복용과 불량한 구강 위생 상태에 따른 치태 침착이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분' 극소량 측정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전자담배 연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극미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된 분석법은 전자담배 사용으로 발생한 연기의 양과 전자담배 용액의 소모량을 비교해 유해성분 생성률을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법은 김기현 한양대 교수팀이 함께 개발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

안전평가원은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국제 표준 분석법으로 제정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중 유해물질을 극소량까지 측정하는 국제 표준 분석법은 없다. 전자담배연기 중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등 카르보닐류에 대한 분석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쉬워진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물품 수출신고를 쉽고 간편히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한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소량의 다품종을 주로 다루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춰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Kmall 24'가 참여해 1300여 개 입점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몰 알리바바의 물류 파트너 현대로지스틱스도 시스템에 참여했다. /김성현 기자

"사랑 담은 김장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공항공사-적십자사 손잡고 인근 이웃에 5000포기 전달

한국공항공사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약 180명은 25일 대한적십자사 양천·강서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5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궈 공항 인근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1100여 세대와 1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김장에 사용된 배추는 공항공사와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에서 재배한 것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전국 14개 공항에 약 1억원을 후원했다. 본사는 나눔행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각 지역 공항 역시 김장김치를 담궈 공항인근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동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고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공항 인근 이웃들에 김치를 전달 했다. /한국공항공사

일기장

Art By 현용민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2	7	4	8	6	9	3	5	1
6	9	3	2	7	5	8	1	4
8	4	7	6	9	1	5	3	2
9	2	6	1	5	3	4	8	7
5	8	1	9	4	7	2	6	3
4	3	9	5	2	8	1	7	6
3	6	2	7	1	4	9	5	8
7	1	8	3	5	6	7	4	9
1	5	9	4	8	2	6	9	5

6	5	2	8	3	1	4	7	9
9	1	4	6	7	2	5	3	8
3	7	8	9	4	5	6	2	1
4	2	1	6	9	3	7	8	5
5	9	3	7	8	4	2	1	6
7	6	5	2	1	9	3	4	8
8	3	6	1	5	7	9	6	4
1	4	9	5	6	8	2	9	3
2	8	7	3	2	6	1	5	7

		1	5	8				7
			9				3	4
				4				5
		7	4					3
4				1				9
5					6	7		
9				5				
1	5				2			
2				6	9	3		

	9			1				7
				5			8	6
	6			8	2	9		4
						4	6	
			7		5			
	2	1						
3		7	1	6			5	
8	1			2				
6				7			4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아들이 어떤 분야로 진로를 정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계통으로 인맥을 찾아보세요

성공대박 남자 87년 3월 11일 9~10시 사이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에 대해서 상담을 올립니다. 성미가 급하고 울분을 잘 터트려서 야단을 칠 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원만한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뚝뚝하고 말이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행정 분야를 전공했는데 일정한 직업이나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시적인 알바로 용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후배들을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서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야단을 치면 집을 나가버리는 기세라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진로를 어느 길로 정해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말을 잘 들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좀 더 참고 아들을 이해해보도록 애써 보라는 식의 조언은 하는 필자도 민망하고 듣는 이도 짜증스런 한마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드님은 '전답이 메마른 형상'으로 한 번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트리고 나중에 번민하며 평생 분주하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는 팔자의 여덟 글 자중 자신의 질서를 조절하는 기능인 관성(官星)이 사주에서 무력하기에 분별력이 다소 늦어진다고 봅니다. 사주에 오행을 분석 해보면 다행히도 생일과 시지에 생각하는 기운인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문서나 공부를 나타냄)가 있으니 공부는 그럭저럭 했는데 연월지지(地支)에 관성(官星:중심)이 중첩하고 있어서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나 모두 안 좋다)하다고 설명됩니다.

돈을 버는데 풍파가 예상되며 향후 7년 까지는 생일지에 암장돼 있는 관고(官庫:관청과 같음)에다 연월지에 묘목(卯木)은 사법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며 운세가 합세하여 형살을 발동하였으니 사고를 쳐서 관재가 펼쳐질 것이 예상됩니다.

올해 을미년(乙未年)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지만 인맥을 찾아 인테리어 계통으로 진로를 잡아보십시오. 잠자는 방향이 서쪽이라면 남서나 동남간으로 침대자리를 바꾸는 것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鬼門: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 상태)이 발동하고 관성에 충살(冲殺:충돌하고 때려 맞는 흉함)이 작용하여 천충지충(天冲地冲)에 방황을 하며 그 후에도 합(合)하는 오행이 왔다 갔다 하므로 세상을 향해 꿈이 커졌다 작아 졌다 함을 참고하고 어렵게 될수록 관음기도를 드려 이성적인 사고를 갖도록 해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1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집니다. 6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갑니다. 7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귀인입니다. 84년생 아랫사람과 도모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소 49년생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힘쓰세요. 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85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지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보세요. 62년생 서쪽에서 빛이 보입니다. 74년생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86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토끼 51년생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다른 날보다 무척 바빠집니다. 75년생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87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용 52년생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64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구설수를 항상 조심하세요. 88년생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뱀 53년생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세요. 65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7년생 주변사람이 배신하게 됩니다. 89년생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말 54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6년생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78년생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90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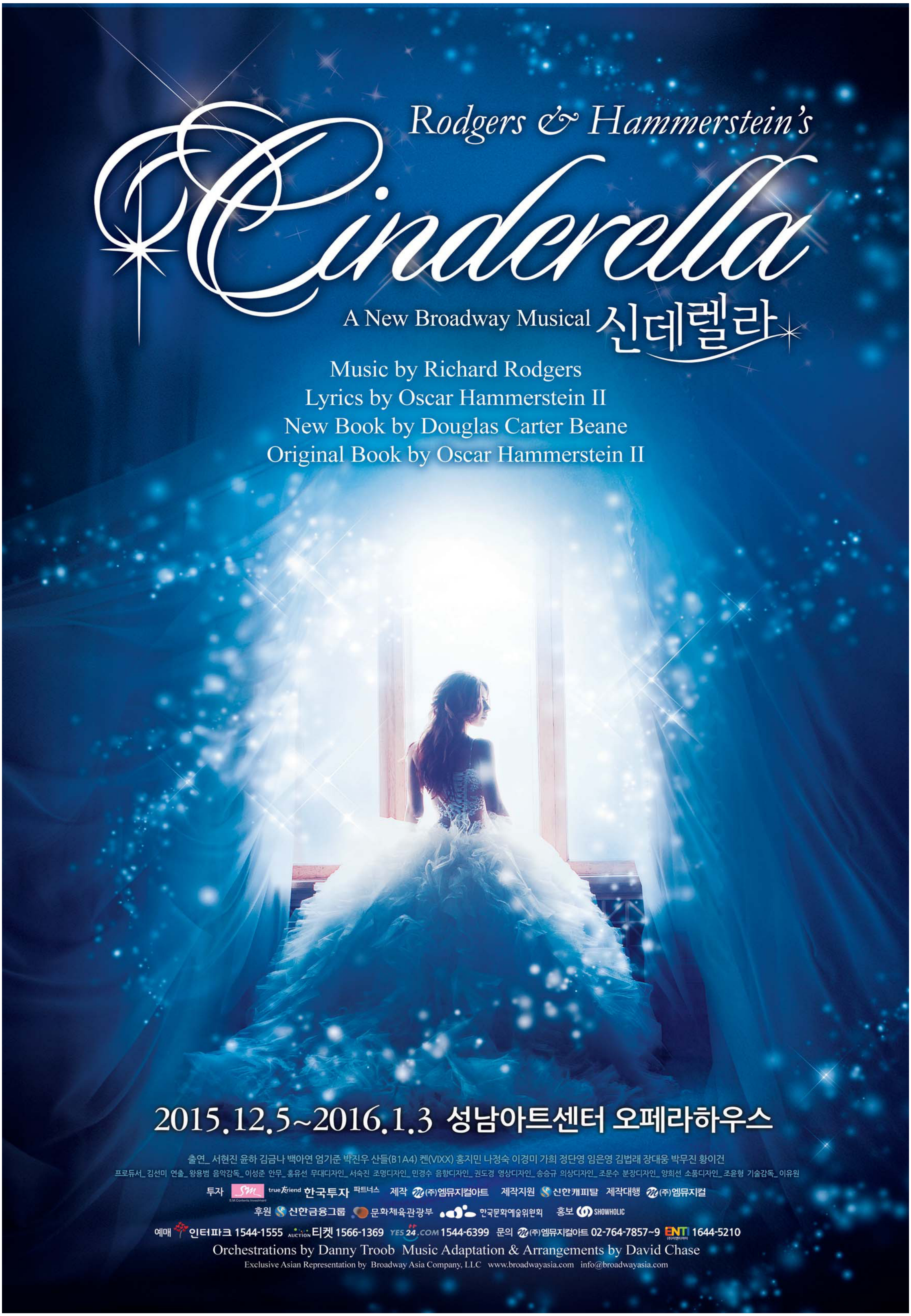
양 55년생 재수는 평탄한 편 입니다. 67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79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68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 하면 부당합니다. 80년생 거짓말은 절대 안됩니다. 92년생 오늘은 밖으로 나아가세요.

닭 57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69년생 배우자와 여행을 떠나세요. 81년생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93년생 남의 일에 끼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개 58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70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기세요. 82년생 할일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94년생 집안 청소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세요. 71년생 미래의 계획을 완성하세요. 83년생 주변의 친구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9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12.5~2016.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_ 서현진 윤하 김금나 백아연 엄기준 박진우 산들(B1A4) 켄(VIXX) 홍지민 나정숙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무진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투자 SM C&C true friend 한국투자 파트너스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나이스’한 한국, 팬과의 만남 기대 커

한국 찾은 스웨덴 보이밴드 JTR

아바·록시트·에이스 오브 베이스 등 세계적인 팝 밴드를 배출한 스웨덴에서 새로운 보이밴드가 나왔다. 존 안드레아손(1990년생·왼쪽), 톰 룬드백(1993년생·가운데), 로빈 룬드백(1994년생·오른쪽)으로 이뤄진 3인조 밴드 JTR이 그 주인공이다.

JTR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삼형제로 구성된 형제 밴드다. 어릴 적부터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해온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뮤지션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어머니인 사라 룬드백 벨은 소녀시대의 ‘아이 갓 어 보이(I Got A Boy)’의 작곡에도 참여한 바 있다.

삼형제로 구성된 보이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세
29일까지 한국서 프로모션

2013년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팩터’의 호주판 시즌5에 등장해 주목 받은 JTR은 이듬해 스웨덴과 호주에서 동시에 데뷔 앨범 ‘터치다운(Touchdown)’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 교보타워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만난 JTR은 “처음 방문한 한국은 ‘나이스(nice)’하다. 사람도 좋고 음식도 좋다”며 “우리의 기존 스타일과 새로운 시도를 모두 담은 앨범을 아시아 팬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한국 방문과 아시아 투어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데뷔 앨범 ‘터치다운’에서 세 형제는 모두 작사, 작곡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앨범 타이틀은 JTR이 처음으로 함께 만든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다. 존은 “이 노래를 계기로 세 명이서 같이 밴드를 하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앨범 제목으로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제지만 음악적인 취향은 각각 다르다. 기타를 치는 존은 존 메이어, 에드 시런 같은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을 좋아한다. 보컬을 담당하는 톰은 팝 차트에 오른 대중적인 음악을, 보컬과 랩을 함께 맡고 있는 로빈은 R&B와 힙합을 즐겨 듣는다. 서로 다른 취향이 하나로 섞여 JTR의 음악이 됐다. 존은 “데뷔 앨범은 싱어송라이터와 어쿠스틱함이 조화를 이룬 음악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 준비 중인 2집 앨범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숙한 사운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을 찾은 JTR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 오늘 오후 8시에는 서울 상암동 달콤커피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한국 팬과 만난다. 존은 “한국 방문 전부터 리허설을 하며 어쿠스틱 버전의 노래를 어떻게 더 잘 들려줄 수 있을지 준비를 많이 했다”며 “한국 팬과 만난다는 사실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

옆집 살 것 같은 ‘친근함’이 장점이죠

스타인터뷰

지난 11일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는 주연 배우인 황정음과 박서준 외에도 유독 신스틸러가 많았다. 그중 베스트를 꼽으라면 단연 안세하(28)였다. 안세하는 ‘그녀는 예뻤다’에서 패션잡지 더 모스트의 기자 김풍호로 등장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효자손을 들고 어슬렁거리는가 하면 툭툭 내뱉는 경상도 사투리로 웃음을 유발했다. 드라마 후반부에 가서는 그가 부사장임이 밝혀져 시청자에게 반전을 안겼다.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로 주목 받은

안세하

최근 홍대 앞 카페에서 안세하를 만났다. 드라마에서 들고 나온 효자손만 없었을 뿐 ‘그녀는 예뻤다’의 김풍호가 TV 밖으로 나온 듯 했다.

“풍호가 부사장이라는 사실은 저도 촬영하면서 알게 됐죠. 짜릿하더라고요. 재벌 2세라고 꼭 잘생겨야 하나요? 현실에서는 회장 아들도 저처럼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예뻤다’는 안세하에게 참 감사한 작품이다. 안세하라는 배우의 존재를 정확히 집어준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김풍호 역할에 캐스팅되기 위해 오디션을 봤고 감독은 그에게 기회를 줬다.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이 많은 걸 오픈해 주셨어요. 제가 애드리브를 굉장히 많

> 드라마 속 반전 역할로 존재감
> 애드리브 연기로 캐릭터 살려
>
> 연극 오디션으로 연기 시작
> ‘꾸밈없고 소탈한 배우’가 꿈

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받아주셔서 참 감사하죠. 저도 나름대로 캐릭터를 살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사투리를 쓰지만 대사톤에 좀 더 신경 썼고요. 효자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도 연구했죠. 물론 효자손은 작가님이 써놓으신 시놉시스에 있던 거였지만요.”

대학 졸업 후 유학길에 오르기 전 우연히 들른 서울에서 본 연극 오디션이 그에게 배우가 되는 계기가 됐다. 안세하는 뮤지컬 ‘비처럼 음악처럼’의 바람잡이와 코러스 담당을 시작으로 활동반경을 서서히 넓혀갔다. “작곡가 역할을 맡은 배우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연출 감독님이 저보고 그 배우 대신 무대에 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동선을 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처음 무대의 맛을 알게 됐어요. 이후 ‘뉴보잉보잉’ ‘올슉업’ 등 다양한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죠.”

안세하는 배우라는 직업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말처럼 지금은 배우여서 정말 행복해요. 많은 분이 알아봐주셨고 드라마 성적도 좋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는 이미지의 캐릭터가 굳어지면 대중은 외면하겠죠. 그 부분은 저도 사람이기에 두려워요. 하지만 계속 즐겁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머물러 있지 않고 징검다리를 건너듯 전진하려고요.”

드라마를 마친 그는 두 편의 독립영화 출연을 앞두고 있다. “어떤 작품에 출연하든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옆집 배우’가 제 꿈이에요. 꾸밈 없고 소탈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배우요. 그리고 작품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준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친근하면서도 편안하지 않나요? 옆집에 살 것 같잖아요.”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무도 드림’ 비하인드 공개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지난주 ‘무도 드림’을 통해 자신의 24시간을 경매에 붙였던 멤버들이 각자 선택 받은 프로그램과 영화 촬영에 나선다. 황광희는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촬영차 강원도 고성을 찾는다. 뱃멀미와 생선에 대한 공포를 안고 방어 잡이에 나선다. 정준하는 박명수를 ‘웃음 사망꾼’으로 만든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위해 열성적인 준비를 보인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12:10 국악한마당	11:30 TOP 밴드 3	11:00 찾아라! 맛있는 TV	10:55 접속! 무비월드	10:20 송곳 (재)	11:30 응답하라 1988 (재)	10:00 수상한 그녀	09:00 주말 N 영화
13:00 동물의 왕국	12:40 개그 콘서트 (재)	12:00 MBC 뉴스	12:00 SBS 뉴스	11:40 썰전 스페셜			10:1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14:00 헬로카봇 2		12:10 달콤살벌 패밀리 (재)	12:10 육룡이 나르샤 (재)		13:20 문제적 남자 (재)	12:30 맨 인 블랙 3	11:40 오토마타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4:05 오 마이 비너스 (재)	14:00 창사54주년 특집		13:00 JTBC 뉴스	14:50 수요미식회 (재)		
15:10 한국인의 밥상 (재)		MBC스포츠 ING생명	14:25 애인 있어요 (재)	13: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스페셜		14:40 오블리비언	14:00 덤 앤 더머2
16:05 명견만리-교육을 위한 제언 (재)	16:20 슈퍼맨이 돌아왔다	챔피언스 트로피 골프 / (2안)	15:25 SBS 뉴스	14: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6: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7:10 두 번째 인생, 배움에서 길을 찾다			15:35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5 (재)				16:20 다크나이트
18:15 동행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6:00 쇼! 음악중심	16:50 토요일이 좋다	16: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응답하라 1988 (재)	17:10 한나	
19:10 다큐 공감	19:55 부탁해요, 엄마	17:00 우리 결혼했어요	〈오! 마이 베이비/주먹쥐고 소림사〉	17:40 히든싱어 4 스페셜	19:50 응답하라 1988		
20:00 운동장 프로젝트 4부작		18:25 무한도전				19:30 퍼스트 어벤져	19:30 청풍자
21:00 KBS 뉴스 9	21:15 연예가 중계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19:40 JTBC 뉴스룸	21:40 SNL 코리아 시즌6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2:35 사람과 사람들	20:45 엄마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0:30 JTBC 드라마 스페셜 빠담빠담			
22:50 청년 대한민국 꿈꾸라,도전하라	23:35 드라마 스페셜(계약의 사내)	22:00 내 딸 금사월	22:00 애인 있어요	21:40 송곳	2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2:00 우리는 형제입니다	22:00 내가 잠들기 전에
23:50 콘서트 7080	24:55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3:00 히든싱어 4			
24:55 T 타임		24:40 진짜사나이 스페셜	24:15 더 랠리스트			24:10 기술자들	24:10 표적
12:10 전국노래자랑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50 MBC 뉴스	09:30 TV 동물농장	10:50 히든싱어 4 (재)		09:00 오블리비언	10:00 몬스터 대학교
13:20 스카우트 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00 출발! 비디오 여행	10:50 백종원의 3대천왕 (재)		11: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10 2015 여자축구	13:10 대국민 토크쇼	13:00 화려한 유혹 (재)	12:00 SBS 뉴스			11:30 퍼시픽 림	12:10 아이엠 넘버 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안녕하세요 스페셜	14:00 창사54주년 특집	12:10 애인 있어요 (재)	13:00 JTBC 뉴스	13:00 SNL 코리아 시즌6 (재)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MBC스포츠 ING생명	13:1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재)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50 콩트앤더시티 (재)	14:10 우리는 형제입니다	14: 20 이온플럭스
17:00 KBS 뉴스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챔피언스 트로피 골프 / (2안)	14:25 SBS 인기가요	14:45 송곳 (재)			
17:10 KBS 뉴스 옴부즈맨		16:00 섹션 TV 연예통신	15:45 정글의 법칙	16:00 히든싱어 4 (재)	16:20 응답하라 1988 (재)	16:30 기술자들	16:20 트루 라이즈
17:40 열린음악회	16:50 해피선데이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6:50 일요일이 좋다				
19:10 도전 골든벨		19:55 MBC 뉴스데스크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5/런닝맨〉	18:20 최고의 사랑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19:00 CSI 시즌16:피날레 (재)	19:1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19:55 부탁해요, 엄마	20:45 엄마	20:00 SBS 8 뉴스	19:40 JTBC 뉴스룸			
21:00 KBS 뉴스 9		22:00 내 딸 금사월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30 송곳 (재)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1:00 토르 2:다크월드	
21:40 역사저널 그날	21:15 개그 콘서트	23:15 시사매거진 2580	22:00 애인 있어요	21:40 송곳	22:50 문제적 남자		22:00 군도:민란의 시대
22:30 취재파일 K	22:50 다큐멘터리 3일	24:05 창사54주년 특집 MBC와	23:10 창사25주년 기획 바람의 학교	23:00 김제동의 톡투유		23:20 퍼시픽 림	
23:10 국제공동제작 지구의 보물	23:5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좋은친구들	24:20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5	24:20 마녀사냥 (재)	24:20 응답하라 1988 (재)		24:40 내가 잠들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대

김규정의
처음과 끝

지난 23일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뉴타운 등 주택 재개발 시장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혔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성장하는 상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터를 닦아놓은 원주민과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고, 간혹 상권의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상 자제에 동참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대학로의 연극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노후한 상가의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 동결과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싸게 장기 융자를 실시하고,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과 개발, 정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미리 세우는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자정 움직임이 엿보이는 서울 시내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이다. 대학로 등에서는 앵커 시설을 짓고, 신촌·홍대·합정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촌과 서촌 일대는 상권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 프랜차이즈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지속적인 상권 개발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의 제한적인 권한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 인허가 관리 강화 등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자체가 직접적인 앵커 시설 개발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이미 현상화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뜨는 상권이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社說

산업화와 민주화의 조화로운 성취

한국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영원히 잠들었다. 일생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삶을 마치고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난 22일 김 대통령 서거 후 이날까지 그의 빈소에는 많은 인사들이 다녀갔고, 26일 영결식장에도 많은 사람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 생전에 척졌던 인사들까지 빈소를 찾았다. 고인의 정치활동 기간 중 경쟁관계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권노갑씨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상주로 참여하거나 빈소에 들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편찮은 가운데서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처럼 생전에 미워하던 사람들도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함께 기원한 것은 사소하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생전에 고인을 미워했거나 혹은 고인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인생과 정치의 노선을 달리했지만, 이제는 화해의 몸짓을 취한 것이다. 완전한 화해와 용서야 어렵겠지만, 과거의 갈등과 앙금을 더 이상 되새기지 않겠다는 몸짓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역사적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인에 대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하려 한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과거 산업화 주도세력과 민주화 주도세력은 서로 손가락질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 모두 한마음이 됐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두 기둥이었음이 재확인했다. 더 이상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조화로운 성취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일깨워준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비록 김 전 대통령 자신이 육성으로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전에 서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나 멀리서 고인을 배웅한 모든 국민에게 말없는 가운데 전해진 유언이다. 그 유언을 실천하는 것은 남아 있는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몫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현실 인식

기자 수첩
박 상 길
〈파이낸스&마켓부〉

매주 금요일마다 견본주택에 다니면서 느낀 건 아파트 수요자가 많다는 점이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단기차익을 거두기 위한 투자자까지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여세를 몰아 내년 중도금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올해 예정된 분양물량을 모두 털고자 막바지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모양새다.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3만6872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 12월 물량인 1만9589보다 88%(1만7283가구)나 많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과잉 공급이 정점을 찍었던 2007년과 닮았다.

당시 수도권에는 최대 물량인 16만7328가구가 공급됐고 대부분 신규 단지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며 분양시장이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입주시점에 시장은 곤두박질쳤고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며 가격 하락으로 결국 수많은 하우스푸어만 양산됐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 인허가 속도를 줄여 적정 공급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일부 지역에서 분양과열 현상이 감지돼 필요하면 컨트롤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해온 바 있다. 모니터링 강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 당장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 직후 현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에서 책임을 건설업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올해가 가기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16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시장 안정세 유지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을 실행에 적극적으로 옮겨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역풍 등 고질적인 악습의 무한 루프는 지금 끊어야 한다.

/sweatsk@metroseoul.co.kr

초고가 가구, 얼마나 비싸길래?

소비자 119

톤첼리 50주년 기념 주방가구 '프로게토 50' 3억원에 호가

아파트 전세가에 버금가는 주방가구와 침대, 중형차 한대 가격의 매트리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듯한 초고가 가구가 몇해 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엄두조차 나지 않는 초고가가구들은 독일, 스웨덴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대부분이다.

가구 전문기업 넵스가 국내 독점 수입·공급하는 이탈리아 주방가구 톤첼리의 '프로게토 50'은 톤첼리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가격은 3억원에 이르며 워낙 고가여서 주문제작만 가능하지만 넵스 강남 전시장에서 실물을 만날 수 있다.

넵스가 수입하는 또다른 주방가구인 독일 에거스만의 유니크 슬레이트는 암석과 스틸의 모던함이 강조된 제품으로 몸값은 2억원이다. 이 제품은 한남더힐 등 고가의 공동주택에 시공되기도 했다.

톤첼리 '프레게토 50'

수입 건축자재 전문기업 하농이 지난해 국내에 소개한 프랑스 주방가구 브랜드 '라꼬르뉴'도 1억원대 제품이 있다.

침대도 맞춤형은 1억원을 호가한다. 스웨덴 왕실 브랜드 해스텐스의 비비더스는 수제작되며 상위1%만 사용할 수 있는 침대로 알려져 있다. 가격은 1억3000만원대. 해스텐스는 대중적 제품도 2000만~3000만원대에 달하며 베컴침대로도 알려져 있다.

씰리침대가 선보인 수제 명품침대 '씰리 크라운쥬얼' 가격은 3000만원으로 다른 초고가 가구에 비해 착한 가격을 내세웠지만 중형차 한대값과 맞먹는다.

/유현희 기자

유니클로와 서울시는 에너지 비용이 부족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에너지 복지 봉사활동을 펼쳤다. /유니클로

유니클로·서울시 '사랑의 에너지 복지 봉사단'

따뜻한 겨울위한 나눔활동 펼쳐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지난달 출범한 '유니클로·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니클로·서울시 사랑의 에너지 복지 봉사단' 활동을 지난 25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 복지봉사단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에 위치한 총 9개 가구를 방문했다. 이들은 '히트텍' 전달, 실내용 난방텐트 설치와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창문과 현관 문틈을 수리했다. 부담스러운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벌인 것이다.

'유니클로·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GS홈쇼핑 영등포구 저소득층 가정에 후원금 2000만원 등 전달

GS홈쇼핑이 영등포구에서 진행하는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GS홈쇼핑은 25일 영등포구청에서 조길형 영동포구청장과 김광연 GS홈쇼핑 미디어홍보부문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 물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원금 2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담은 '리얼러브박스'가 전달됐다. 영등포구청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과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왼쪽)과 김광연 GS홈쇼핑 미디어홍보부문 상무가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홈쇼핑

인사

◇KBS ▲편성본부장 김성수 ▲보도본부장 김인영 ▲TV본부장 조인석 ▲기술본부장 박병열 ▲시청자본부장 박희성 ▲정책기획본부장 김대회 ▲편성본부 콘텐츠창의센터장 홍혜경 ▲글로벌센터장 홍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산업관측센터 센터장 옥영수

◇외교부 ▲ 주뭄바이총영사 김성은

◇경기도 ▲ 농업정책과장 김충범 ▲ 농식품유통과장 박종민 ▲ 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 ▲ 종자관리소장 안수환

부고

▲ 이재용씨 별세, 이윤석㈜두산 전자BG 부사장)씨 부친상 = 25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031-219-4605.

▲ 이해종씨 별세, 이광주(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전산업무팀장)·윤주(무림캐피탈 대리)·은경·지연·진희·수영씨 부친상, 신동철(신한금융투자 본부장)·최종배(대구캐피탈 부지점장)·임명준(LG전자 실장)씨 장인상 = 25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02-3779-1526

▲홍성진(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지수(LG화학 오창1공장)씨 부친상 = 25일 오전 7시, 빈소 충북대병원 특1호실, 발인 27일, 043-269-7211

▲ 이연석씨 별세, 연제훈(충청일보 진천지사장·㈜청풍엔지니어링 대표)씨 부인상 = 26일 오전 4시45분,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백악관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43-532-83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LA다저스의 류현진(오른쪽)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부터 명예대사 대형 명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맨 오른쪽)가 26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부인 하원미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평창의 얼굴' 현진·'키다리 삼촌' 신수

MLB 스타, 한국서 뜻깊은 행보

류,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美서 열리는 홍보 이벤트 참여

추, 초록우산재단 기부금 전달
소외층 어린이 꿈 · 희망 응원

올 시즌을 마치고 한국을 찾은 메이저리거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국내에서 뜻깊은 행사를 벌이고 있다.

류현진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외신지원센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평창조직위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대회를 홍보하는 대표 얼굴로 활동한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이벤트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류현진은 "올림픽은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회"라며 "많은 분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추신수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추신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부인 하원미 씨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를 방문해 기부금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을 통해 많이 배웠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저 자신을 지탱해주는 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에게도 그런 롤모델(본보기)이 됐다는 것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추신수의 후원을 받고 있는 야구 유망주 김신호(19·부산동의대), 미래의 레슬링 국가대표를 꿈꾸는 신영철(17·전남체고)군이 함께 했다. 추신수는 "항상 너무 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목표만 바라보면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저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길 바란다"고 이들을 응원했다.

추신수는 201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해에도 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해뜸/07:23 | 해짐/17:15

11월 27일 금요일 (음력 10월 16일)

어제보다 차가워진 공기… 바닷가 거친 파도 주의

전국에 구름이 많고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눈이 오다가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2.0~6.0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서해상부터 점차 낮아지겠고, 남해 앞바다에서는 1.0~2.5m로 일겠습니다.

지역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7/2	10	10
강릉	−1/6	10	10
세종	−3/2	20	20
대전	−3/4	60	20
청주	−3/3	20	20
광주	1/6	90	20
전주	−1/5	60	20
목포	2/6	60	20
제주	4/8	60	30
대구	−1/6	10	10
창원	0/9	10	10
포항	0/8	10	10
부산	1/10	10	10
울릉	2/7	8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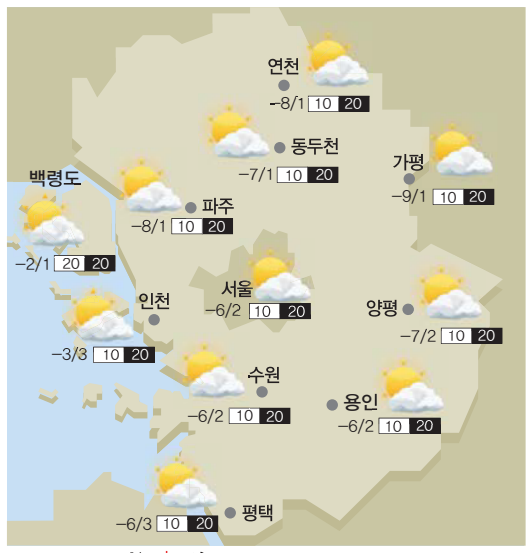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2 ~ 6℃

자외선 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19:13/21:27	02:41/15:06
인천	05:22/17:52	11:40/ – : –
울산	08:21/20:54	01:55/15:06
군산	03:34/16:08	10:36/23:14
목포	02:35/15:17	07:52/20: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손흥민, 주말 첼시 상대로 골 사냥

부상 회복 후 최근 상승세
'전국구 스타' 발돋움 기회

기성용, 30일 리버풀과 일전
구자철은 친정 볼프스와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3)이 오는 주말 첼시를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오는 29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홈구장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첼시와의 경기를 치른다.

이에 앞서 토트넘은 27일 새벽 3시에 카라바크(아제르바이잔)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먼저 치른다. 이틀 쉬고 첼시를 상대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손흥민은 두 경기 가운데 한쪽에만 전념하거나 두 경기 다 뛰더라도 출전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부상 회복 이후 손흥민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가대표에 소집돼 라오스를 상대로 두 골을 몰아쳤다. 토트넘에 복귀해서도 23일 웨스트햄을 상대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7일 상대하는 카라바크는 9월 유로파리그 첫 대결에서 두 골을 기록한 팀이다. 29일 첼시전을 앞두고 골 감각을 조율할 기회다.

첼시는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이번 시즌 4승2무7패에 승점 14로 20개 팀 가운데 15위로 부진하다. 그러나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노리치시티를 1-0으로 물리쳤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마카비 텔아비브(이스라엘)를 4-0으로 완파하며 2연승 상승세로 돌아섰다.

손흥민이 첼시와 같은 명문팀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다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6)은 30일 오전 1시15분 리버풀과 경기 출전을 준비한다. 스완지시티는 최근 3경기에서 1무2패로 부진하다. 리버풀을상대로 승점을따내려면 기성용의 활약이 절실하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아직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감각을 끌어올린 만큼 이날 경기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구자철(26)도 오는 30일 '친정' 볼프스부르크를 상대한다. 21일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시즌 3호 골을 넣은 구자철은 두 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장병호 기자

김인식 감독, 올해의 일구대상 또 받는다

프리미어12 우승 …2회 수상 유일
타자상 박병호·투수상 차우찬 선정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의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12 첫 대회에서 우승을 일군 김인식 감독(사진)이 2015년 일구대상을 받는다.

한국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이재환)는 2015 넷마블 마구마구 일구상의 10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영예의 일구대상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막내린 프리미어12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며 우승을 차지한 김인식 감독에게 돌아갔다.

김 감독은 2009년에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구회는 "이 때문에 김 감독은 이번 수상을 극구 사양했지만 선정위원회 전원이 간곡히 청해 유일하게 두 차례 일구대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최고 타자상은 2년 연속 50홈런 이상을 친 넥센 박병호가 차지했다. 최고 투수상은 프리미어12 대회에서 활약한 삼성 차우찬이 선정됐다. 신인상에는 타격 부문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삼성 구자욱이 뽑혔다.

일구상 시상식은 12월 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MLB닷컴 "韓 3루수 황재균 포스팅 참가"

커리어 하이 2014년 활약도 소개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황재균(28·롯데 자이언츠)이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한국프로야구 3루수 황재균이 포스팅 절차를 밟는다. 황재균은 한국에서 9시즌을 뛰며 타율 0.280, 88홈런, 481타점을 기록한 타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2014년에는 128경기에 나서 타율 0.321, 26홈런을 쳤고 올해는 97타점을 올렸다"며 황재균이 개인 최고 성적을 기록한 2014년과 2015년을 소개했다.

또한 MLB닷컴은 "황재균이 한 시즌 더 뛰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포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이적료가 롯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롯데는 26일 KBO에 황재균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참가를 위한 공시 요청을 할 예정이다. 팀 동료 손아섭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이 유찰되면서 황재균에게 기회가 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KBO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황재균의 포스팅 신청 사실을 알린다. 이후 나흘 동안 비공개 입찰이 열린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입찰이 끝나면 최고 응찰액을 KBO를 통해 통보한다. 롯데는 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병호 기자

男 핸드볼, 올림픽 본선 직행 좌절

카타르와의 준결승전에서 윤시열이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3-4위전 이겨야 최종 예선 진출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직행에 실패했다.

한국은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 준결승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26-30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27일 열리는 바레인과의 3~4위전에서 승리해야 대륙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나라들이 모여 벌이는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있게 됐다.

11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팀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에 직행한다. 2, 3위 팀은 최종 예선 진출권을 얻는다. 3~4위전에서 패하면 올림픽에서 출전하지 못한다.

이번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 조별리그에서는 바레인에 30-31로 졌다. /장병호 기자

예비 엄마·아빠의 '베이비페어' 200% 공략하기

〈육아박람회〉

제20회 맘앤베이비엑스포

29일까지 올해 마지막 박람회
일산 킨텍스서 250개사 참가

올해 마지막 육아박람회가 열린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또 출산 후 용품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면 이번이 2015년 마지막 기회다. 유아용품 기업들은 상시 할인 행사를 벌이지만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할인율이 더 높아진다.

유아교육 전문 기업 유아림은 '제20회 맘앤베이비엑스포'를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1~2홀에서 연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맘앤베이비엑스포는 총 250개사, 1000여개 부스가 참가하는 국내 최다 브랜드, 최대 규모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이 샤넬로 불리는 프랑스 프리미엄 브랜드 '타티네 쇼콜라'가 베이비페어 최초로 입점 예정이며 해외 셀러브리티 맘들이 즐겨 찾는 프랑스 유기농 유아 브랜드 '플래닛 키드' 역시 이번 베이비페어를 통해 론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3개국 안전인증을 획득한 카시트 브랜드 '순성'이 제나 주니어 카시트를 선보인다.

◆ 놓치면 후회하는 경품 이벤트

특별 할인과 함께 벌이는 이색적인 현장 이벤트는 놓쳐서는 안될 맘앤베이비엑스포만의 즐거움이다. 부지런한 엄마라면 유아용품을 공짜로 챙길 수도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저귀 가방, 맘스케어 크림, USB 가습기, 프리미엄 아기세제 등 엄마들을 대상으로 일일 선착순 200명씩, 4일간 총 8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를 연다.

스마트한 부모는 SNS로 손쉽게 경품 응모도 가능하다. 맘앤베이비엑스포는 당첨 예상 번호를 골라 맞추는 카카오스토리 사다리 타기 이벤트, 맘베 관련 문제를 푸는 '제 1회 맘베 영역' 퀴즈 이벤트, 인스타그램 오픈 이벤트 등을 연다. 회원가입 이벤트는맘앤베이비엑스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 중 랜덤 추첨을 통해 유모차, 카시트, 놀이방매트 등 육아 필수품을 제공해준다.

오르빗 G3

◆ 알뜰맘 공짜 입장 노하우도 주목

클릭 한 번이면 매표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입장료를 낼 필요도 없다. 5000원짜리 입장권을 구매해 행사장에 방문해도 되지만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망설이지 말자. 방문 전 맘앤베이비엑스포 공식 홈페이지(www.momnbabyexpo.co.kr)에서 간단히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기존 사전 등록자 또한 신규 회원 가입을 해야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전시장 로비에 마련돼 있는 회원전용 등록대에서 본인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 입장하면 된다. 행사 기간 동안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 후에는 큰 면적의 공간이다 보니 가이드북을 이용해 부스번호와 방문하고 싶은 업체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쾌적한 쇼핑을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시회 정보〉
- ◆ 전시회명: 제20회 맘앤베이비엑스포 (국제임신출산_유아교육박람회)
- ◆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11월 29일(일) 10:00~18:00(17:30 입장마감)
- ◆ 장소: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1,2홀
- ◆ 주최: ㈜유아림
- ◆ 참관대상: 임신 출산부, 예비 엄마 아빠, 유아교육 관련자, 국내외 제조사 및 유통관련 바이어 등
- ◆ 규모: 250개사 1000부스 (21,384㎡)
- ◆ 입장료: 5,000원(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무료, 만 12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관람객 무료)
- ◆ 전시품목: 태교용품, 출산용품, 임산부용품, 안전용품, 임산부서비스, 영유아 식품, 영유아서비스, 영유아 교육용품, 가구·인테리어 등
- ◆ 문의: (주)유아림 전시사업팀 (http://www.momnbabyexpo.co.kr/02-2236-2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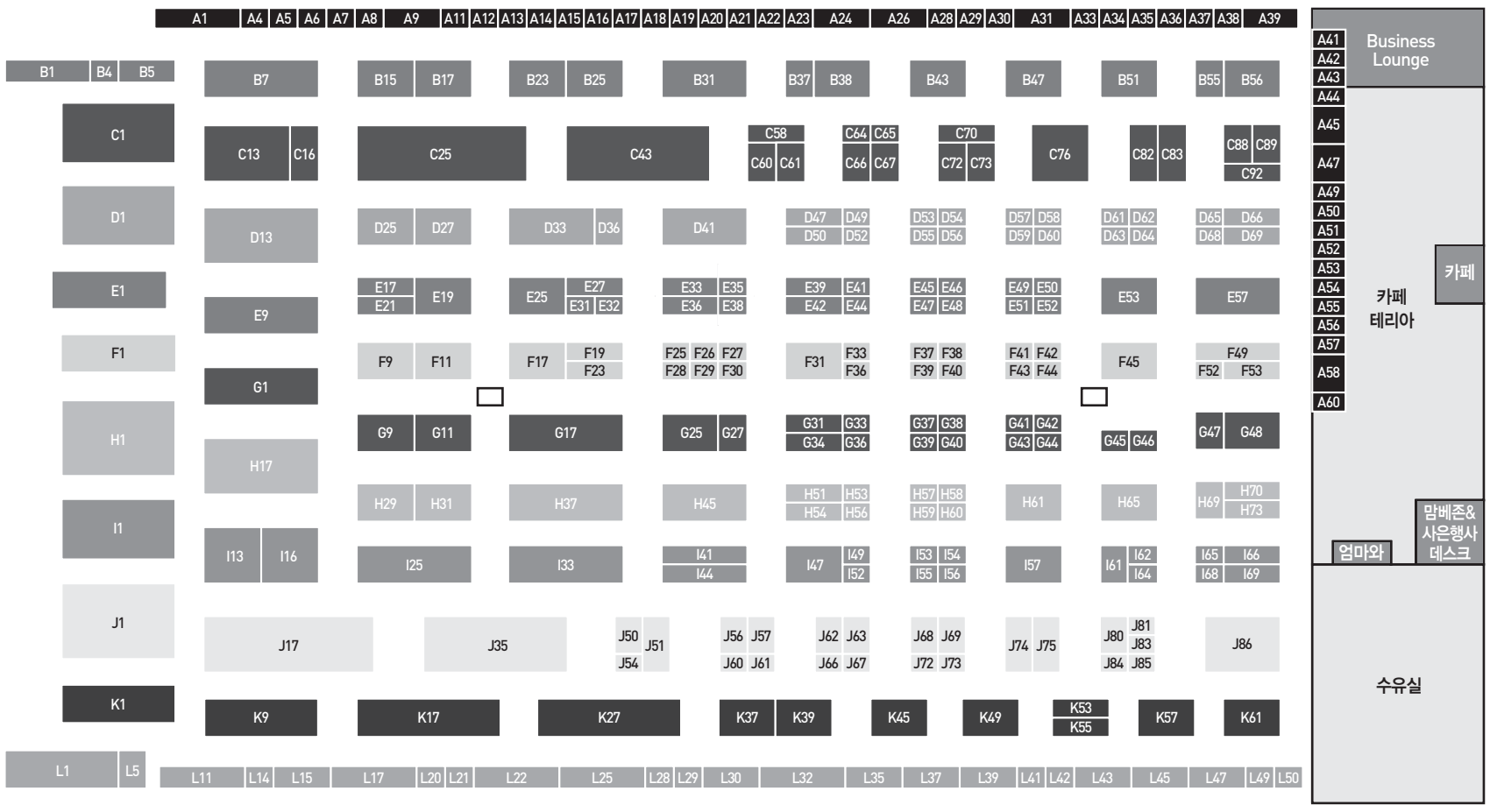
유모차·카시트 등 다양한 현장 경품에
'어린이 샤넬' 佛 타티네 쇼콜라도 참가
공식 홈피서 회원 가입하면 무료입장
관심있는 업체 부스번호 미리 챙겨야

◆ 유모차 대여 수유실 정보도 미리 챙겨야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람이 좀 더 편해진다. 아기를 동반한 경우 대여용 유모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직까지 유모차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대여 유모차를 사용해보고 제품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맘앤베이비엑스포는 500대의 대여 유모차를 현장에 비치했다. 관람 도중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는 물론 수유실도 어느 박람회보다 넓게 마련했다. 카페테리아와 수유실은 전체 면적의 약 7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약 3564㎡, 920평) 넓다. 전시장 개장시간에는 합정·수유·잠실·교대 등 서울 주요 지점과 대화역에서부터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엄마·가족 수유실, 핸드폰충전 등 관람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제20회 Mom & Baby Expo 참가업체 부스배치도



A1~A39: 아가홀릭, 바니맘스, 더좋은유통, 스마트에스, 버츠비, 후레쉬'풋'-다미산업, 닥터맘스, 보솜이, 오앤오, 휴비딕, 테드, 비엘퓨리티, 프라나아이앤씨, 오에스베이비, J.RAN COMPANY, 치키치카, 제이하우스, 베이비매니아, 토미토미, 디마트, 맘스데이 임산부 언더웨어, 맘앤맘스, 오가닉팩토리, 포베이비, 한국파머스, 리얼과일 바나나 실로칩, 슈톨렌, 제이엔씨글로벌, 한성식품, 브라운, 밍크엘레팡, 베베캐슬코리아

A41~A60: DR.OBERON, 푸른들, 노은Mom, 그루아이, 보니, 조조베베, 아이트리, 해피스토리, ANGE® 앙쥬, 그림인터내셔널, 콘프라테크, 각시밀, 트라맥스(테스TESS), 베베가닉, READY2C, 엠플러스, 에스어반

B1~B56: 엘빈즈, 한스네이처, 큐피, 하로월드, 프뢰벨, 바비즈코리아, 바비즈코리아, 한국차일드아카데미 도서출판 명꼬, 이덕아이앤씨, 일동제약, 와이피, 알로앙베이비, 레이퀸(RayQueen), 베베스토리, 제이엔제이커뮤니케이션즈, 롤베이비

C1~C92: 녹십자제대혈은행, 베이비파크, 수호천사 동양생명, 내생에 첫번째 선물 스튜디오, 웅진북클럽, 명동 라루체, 제이제이컴퍼니, 라이크썬, 아이엠피엔터프라이즈, 지투지, 와이즈, 블레싱포유, 배냇베이비, 한국베이비플래너협회, 차병원 제대혈은행 아이코드, LG전자 BESTSHOP, 프라젠트라, 마마치, 아이배냇, 로만

D1~D69: 베이비파크, 벨라베베, 생활낙원, 롯데마트, 일동 베이비락 생유산균, 바이크패밀리, 까꿍놀이터, 엄마의 마음, 맘스부르그, 베베락, World Vision, B.A.F베이비, 프랑스키즈뷰티 플래닛키드, 머커, Joyworks, 비오케이, 마미즈, 아기사랑, 앙블랑, CUCKOO, 아이클린 키즈액세서리, 호신인펀트, 로코코아이, 에그디자인

E1~E57: 튼튼영어, 누보리노코리아, 베이비파크, 제이엘린코리아, 쎄로또레, 베이비파크, 복음자리, 실리캠, 마더앤베이비 산후도우미, 스누자, 키즈클라라&니콜라, 강남밝은성모안과, 페블차일드, VMK, 브로멜리아드, NARLE 나를, 나린, ㈜크로스앰, 에리에르, 디자인스킨

F1~F53: 유니커즈, 베이비파크, 웅진씽크빅, 하마씨앤티, PALMANA(팔마나), 휘마켓, 오르다코리아, 코리아컴퍼니, 하이워크, 우리찬, 해피프린스, 굿인터내셔널, 부르힐에스테틱, HYUNDAI DEPARTMENT, 클래식

G1~G48: 순성산업, 베이비파크, 벨라베베, 아이비스타, 밤뜨래영농조합법인, 동양매직, 아이조움, 디아메리칸블랜드, 애플링, 아토비, 이젠크리에이션, 제주 유기농화장품 오썸, 누드네일, 원앤온리, 미로, 안동마죽, 리틀맘, 클래식, 마이베이비, 마더케이, 그로미미

H1~H73: 스튜디오 아이와, 까모르, 에이원, 에이비씨프로덕트, 벨라베베, 졸리마(Joliema), Dole(돌) Korea, 에스마린시스템, 요요트레이드, 리샘인터내셔날, 보석푸드, 보니타베베, 아벤트코리아, COLOCOLO, 장원교육, 순정(SJ), 코웨이, 프렐클링

I1~I69: YkBnc, 비오엠, 엠베이비, 한솔교육, 연두비&와이즈북, 여원미디어, 에버티, BWL코리아, By eL cashmere, 드로잉베이비, World Vision, 꼬까참새, 월드패밀리 잉글리쉬코리아, 샘표 연두, 에이팜건강, 코트니홈, 서울우유협동조합, 르베베, 라희, 레몬트리

J1~J86: YkBnc, 웰스라이프, 배시시 스튜디오, 프띠아띠 실리콘 젖병, 엘림코리아, 피그비코리아, 매직에듀, In the block, 베스트그린라이프, 페이스오프, 아람, 제이웨이브, 유로베베, 홈케어, 루바니, 동아제약, 바비실, EZ(이지)가습기, 핀포인터커뮤니케이션즈, 오가닉스몰, 맘스네이처, 첨소리, 테드 인터내셔널, 엘드 마더스로렐, 라이, 에엠지, 이바겐

K1~K61: 에이원, 센스베베, 아벤트코리아, 알집매트, NUCLEO(누클레오), 쁘띠마리에, 베베라온오가닉, 에프랑 베이비, 동아제약, 나비잠&하늘수, 코튼리퍼블릭, 아이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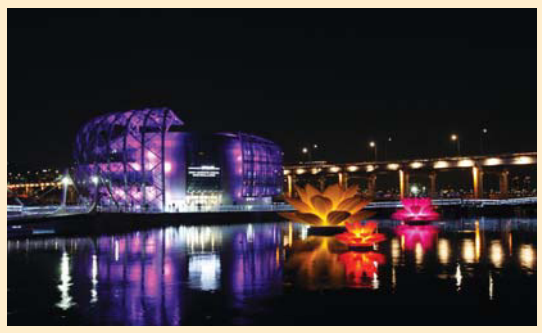
L1~L50: 에이원, 푸드케어, 신한에이원, 내이브로, 엠씨에이, 사노산코리아, 베이비앙(펀비즈), CM Company, DR.OBERON, 롤리베베, i-rang, 네이처마더, 아가프라, 카리부 욕조, 메이드로, 본베베, 프라하우스, 아이뽀송, 드림맘, 버드시아

[스포츠]
추신수·류현진
MLB스타의
사랑 행보
18

연재만화

14

1 세빛섬



세빛섬 외벽의 야간조명은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발걸음도 붙잡는다.

반포대교

해가 진 반포한강공원은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밤공기를 자랑한다.

2 성산대교

반달모양으로 설계된 성산대교는 독특한 조형미를 뽐내 아마추어 사진가의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3 한강대교(견우·직녀카페)

가을 밤 한강대교의 전망카페에서는 아름다운 조명과 일렁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4 한남대교(새말카페)

해가 진 한남대교의 새말카페는 몸을 녹이기 위해 방문한 연인들로 북적인다.

한강, 만추의 야경에 빠져보자

〈晩秋〉

세빛섬·성산·한남·한강대교 등 한강사업본부 조경 명소 소개

강변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사계절 언제라도 좋다. 그러나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강바람까지 불어 야경을 감상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한강사업본부가 가을의 끝자락에 가족·연인·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강 야경 조망 명소를 소개했다. 적게는 며칠, 많게는 1~2주일 남은 만추의 야경을 즐겨보자. 특히 11월 한강은 일몰 포인트가 최고의 위치로 떨어져 연중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총 26개의 한강다리 중 반포한강공원의 세빛섬은 해 질 녘에 가면 석양을 보기 위해 찾은 연인들로 가득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아름다운 경관조명과 함께 재즈음악이 어우러져 반포한강공원의 밤은 파티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는 세빛섬 외벽의 야간조명과 얼마 전 세빛섬 앞 수상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 '숨쉬는 꽃'은 시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발걸음까지 붙잡는다.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성산대교도 빼놓을 수 없다. 성산대교는 반달모양으로 설계돼 독특한 조형미를 뽐내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산대교 남단에는 산책로가 있어 걷기에 좋으며 북단은 남단 쪽에 즐비한 고층건물을 찍기 좋은 장소로 손꼽힌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갈 때 즈음 한강다리에 있는 7개의 전망카페를 들러보자. 황홀한 석양을 바라보며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 상류에는 '견우카페', 하류에는 '직녀카페'가 있다. 두 곳 다 63빌딩을 배경으로 붉게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다. '견우카페'에서는 따뜻한 허브차를, '직녀카페'에서는 옛날도시락을 맛보기를 권한다.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한 '새말카페'는 한강다리를 건너는 자동차 불빛의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감상하기에 좋다. 검은 밤하늘을 주황색으로 수놓은 불빛과 강물을 바라보다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올 것이다.

전망카페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국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번 주말 카메라를 들고 한강공원에 방문해 만추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